오산문화

osan culture

2013 VOL.55



오산문화원
OSAN CULTURE CENTER

오산문화

osan culture

2013 VOL.55



표 / 지 / 설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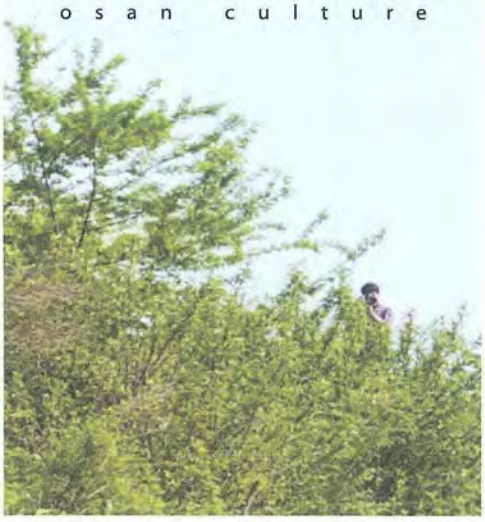
제4회 독산성문화제의 둘째날 행사로 시연된 독산성 트레킹 프로그램 장면.
고인돌공원에서 출발하여 여계산을 관통하여 애기바위를 지나고
독산성 남문을 거쳐 권율 바위와 세마대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로서
이 날 독산성 정상에서 열리는
독산고유제에 맞추어 도착하도록 기획되었다.



문화예술의 사랑방

오산문화

osan culture



권두언

차분하고 진지한 삶을 바라보는 지혜 / 임명재 ····· 04

고전의 향기

군자는 물러나고 소인만 득실하다! / 박재희 ····· 06

죽미령 쉼터

시 / 사랑터 어머니, 땅끝마을에서 – 채희숙 ····· 08

사진 / 오산천 1, 오산천 2 – 정송자 ····· 10

노을속으로, 빅토리아 연꽃, 상사화 1 – 정정국 ····· 11

독산성학술제

18세기 독산성의 위상과 화성성역 / 정해득 ····· 12

향토사이야기

오산 죽미령 유엔군초전비와 오산전투(죽미령 · 갈곶리)
/ 남경식 ····· 24

금암동산신제(錦岩洞山神祭) / 한민규 ····· 35

문학강좌

수필로 쓴 수필론 / 박장원 ····· 43

문화탐방

강원도 춘천 / 추은실 ····· 46

문화단체 순례

오산운암예술단 / 배명숙 ····· 51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
"오랜 인생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소리" / 배명숙 ··· 53

제4회 독산성문화제

제4회 독산성문화제 후기 / 유종대 ····· 56

2013년 오산시 정월 대보름 큰잔치

2013년 오산시 정월 대보름 큰잔치 / 유종대 ····· 64

차 한 잔의 여유

논어 / 노은영 ····· 67

오산 문화 소식

오산, 문화 지평을 넓히다 / 이숙영 ····· 72

신간안내

신간안내 / 추은실 ····· 86

2013년 오산문화원 상반기 소식

2013년 오산문화원 상반기 소식 ····· 87


"늘 6월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차분하고 진지한 삶을 바라보는 지혜

| 오산문화원장 임 명 재 |

늘 6월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갖가지 상반기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달인 6월은 오산문화원의 활기찬 행사로 상반기를 보낸 뿌듯함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엔 이런 저런 역사적인 아픈 상처가 공존했던 그러한 6월은 아픔을 간직한 기념일 많은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물난리 없이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는 금년에도 굵직한 태풍이 두어 개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걱정이 큽니다.

오산문화원도 1월 1일 신년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8회 정월대보름행사가 시민 3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으로 마쳤고, 4월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탐방로 걷기 행사, 5월에는 오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제4회 독산성문화제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춘천으로 문화탐방도 갔다 왔으며, 현재는 오산역사문화 바로 알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문화원은 상반기를 이어 하반기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오산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사년 한해가 붉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정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차분하고 진지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슬기롭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3. 06.

군자는 물러나고 소인만 득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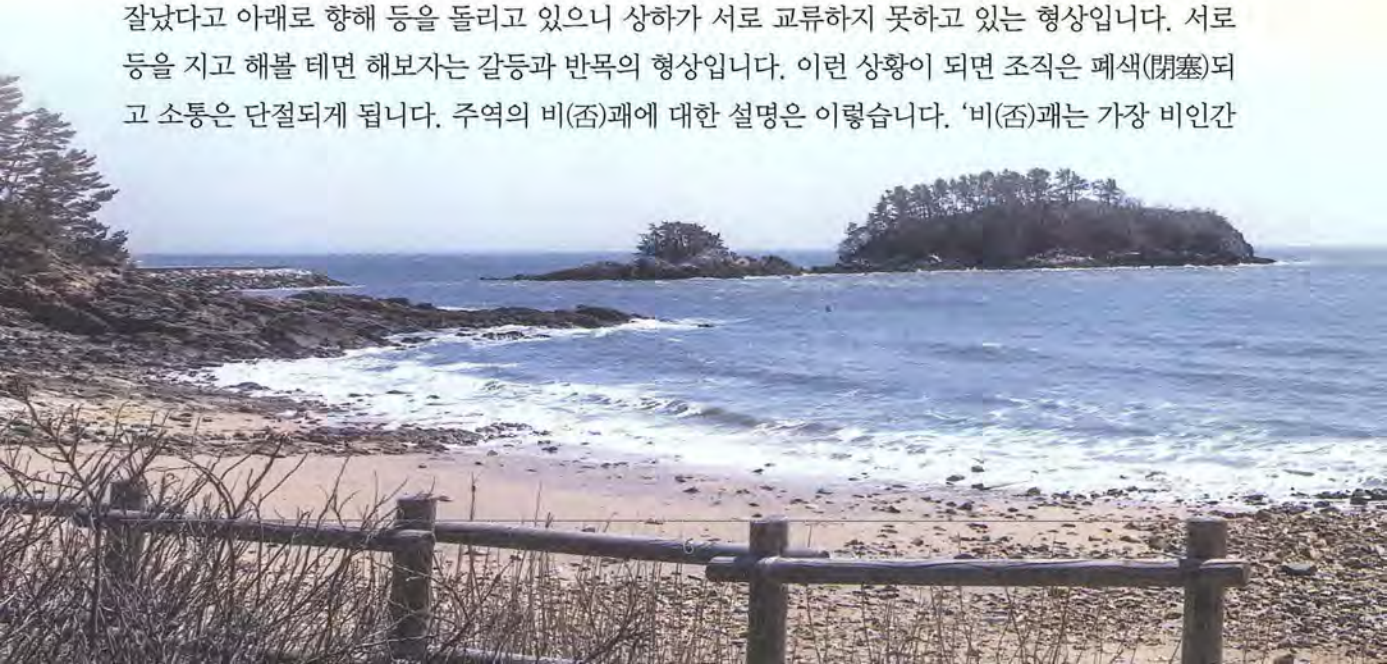
천지비(天地否) – 『주역(周易)』

| 박재희 |

어떤 조직이든 소통(疏通)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소통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국가는 온 국민이 소통하면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소통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와 국민, 도시와 농촌,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소통이 막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동양고전은 『주역』 입니다. 『주역』 은 소통의 고전입니다. 『주역』 64괘를 보면 얼마나 통(通)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흥망이 교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 에서 소통과 관련하여 최악의 소통을 나타내는 괘를 꼽으라면 12번째 비(否)괘입니다. 천지비괘(天地否卦)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으니 당연히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향하여 자신만 옳다 하며 군림하려 하고, 땅은 자신이 잘났다고 아래로 향해 등을 돌리고 있으니 상하가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서로 등을 지고 해볼 테면 해보자는 갈등과 반목의 형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조직은 폐색(閉塞)되고 소통은 단절되게 됩니다. 주역의 비(否)괘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否)괘는 가장 비인간



적인 형상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니 만물이 불통이다. 상하가 교류가 안되고 있으니 하늘 아래 제대로 나라가 존재하지 못한다. 소인들만 중앙에 득실거리고 훌륭한 군자들은 밖에 머물러 있다. 소인들의 도는 날로 자라고 군자들의 도는 날로 소멸되어 간다.'

天地否, 天地不交而萬物, 不通也
천지비, 천지불교이만물, 불통야

하늘과 땅이 막혀 있구나!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 만물이 불통이로다!

고대 제왕들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은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리더의 자세에서 리더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자발적 소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주역의 원리가 변(變)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변한다는 것인데요, 당장은 막혀 있지만 결국 소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불통(不通)은 결국에는 소통(疏通)으로 변합니다.

天 地 否
하늘 천 땅 지 막힐 비

석천 박 재 희

- posco 전략대학 석좌교수
- 민족문화콘텐츠 연구원장
- 저서 『손자병법으로 돌파한다』, 『경제전쟁시대 손자와 만나다』, 『3분 古典』

사랑터 어머니

| 시인 채 희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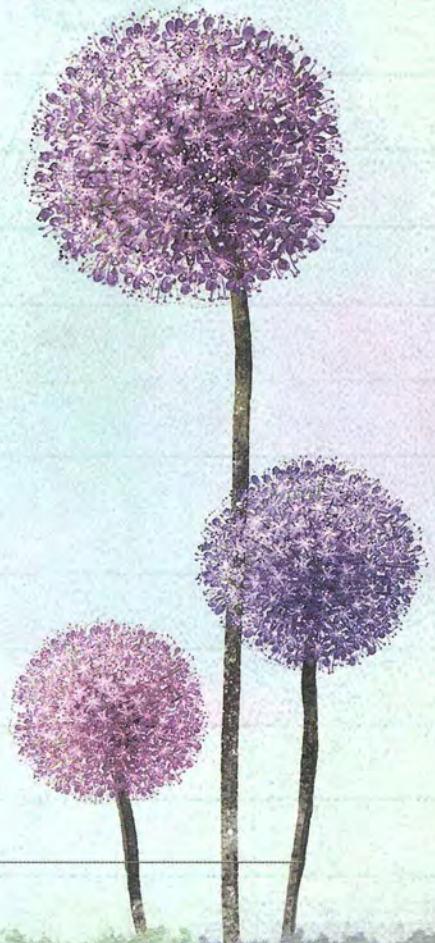
어머니
얼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했습니까

어머니 당신에게
연죽을 떠먹이며
저의 가슴 뜨겁습니다

하고픈 그 많은 이야기
정신마저 잃게 하리고
매일 되신 몸으로
누워계신 어머니
저의 가슴 뜨겁습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수저 한 모금 물을 떠
가루약 새끼손가락으로 뭉그려뜨려
입안에 넣어 드리며
저의 가슴 뜨겁습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언제든 달려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래로 기다려주세요
저의 가슴 뜨겁습니다



땅끝마을에서

무심한
세월 덧없이 보내고
그대 그리워
그대를 잊으려고
땅끝으로 달려왔다
다시금 그대를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대와 다시 이별했다
바다는 그대를 품고
나를 밀어냈다
갈 수 없는 먼 나라
해 뜨는 나라



채 희 숙

- 경기도 오산시 출생
- (사)오산시인협회 감사
- 시집 『강물위에 띄운 편지』 공저 『숲으로 난 길』 공저
- 시화집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공저
- 월간 『문예사조』 로 시 등단
- 수원대학 사회정보교육원 문예창작과 수료

작 품

| 사진가 정송자 |



오산천 1



오산천 2

사진가 정 송 자

– (전)오산시사진가회 회장 – 오산시사진가회 자문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수원지부 회원
– 개인전 : 아름다운 오산(1회), 아름다운 물향기수목원 사계(2회)
– 동북아시아사진교류전 – 경기예술제 등 단체전 65회 참가

작 품

| 사진가 정정국 |



노을속으로



빅토리아 연꽃



상사화 1

사진가 정 정 국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전국사진공모전 심사 자격자
-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 오산대학 사진아카데미 출강 중

18세기 독산성의 위상과 화성성역

| 한신대 교수 정 해 득 |



1. 머리말
2. 영조시대 독산성 정비
3. 정조시대 관방체계 개편론과 독산성
4. 화성 축성과 독산성 지휘체계의 개편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증명된 독산성은 경기남부지역의 관방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수원부사는 방어사를 겸직하게 되어 비변사 회의에서 적임자를 천거하여 임명하는 자리가 되어 문관 정3품이나 무관 종2품이 임명되었다.[1] 1624년(인조2) 총융청이 설치되자 독산성은 5영의 한 곳이 되었다. 수원부사는 병마좌방어사(兵馬左防禦使)와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 군사 업무를 처리하게 되자 1626년 김신국은 수원의 독산성과 같이 큰 고을에 설치된 목사가 방어사를 겸대하게 하여 치민과 방어의 일을 표리관계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

병자호란 이후 국내외적으로 큰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관방상의 중요한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한양 주변으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김포 문수산성 등이 계속 정비되어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1728년 발생한 이인좌의 난은 이괄의 난 이후 백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반란으로서 외적의 침입만이 아닌 내부의 반란까지 염두에 둔 방어체계를 검토하게 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 오명항은 수원을 거쳐 진위에 진주하면서 안성을 선점하여 일거에 난을 진압하였는데, 독산성은 오명항 본진의 배후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관방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 영조시대 독산성 정비

1740년 수원부사 이정보(李鼎輔)는 수원의 읍성축성론을 제기하였다. 이정보는 수원의 지리적 조건이 3면이 바다에 접하고 1면은 3남의 요충을 공액하고 있는데, 관청이 평원의 훤한 들 가운데에 있고 고산대천의 험한 지형이 없어 4면으로 적을 맞는 형세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에서 5리 거



1) 『大典會通』 卷1, 吏典 相避條. 비변사에서 적임자를 논의하던 관직은 이조 · 호조 · 병조의 판서와 개성 · 강화유수, 평안도 · 함경도 관찰사, 광주부윤, 의주부윤, 수원 · 동래부사 등이었다.
2) 『承政院日記』 인조 4년 10월 22일. "…依水原禿城例 牧使兼帶防禦使之號 治民守禦之事 表裏相濟 一體句管 俾無掣肘之弊…."

리에 독산성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또 샘과 우물이 없어서 1만의 군졸을 수용할 수 없으니 관부에 축성을 하여 독산성과 더불어 기각의 형세가 되면 관방상으로 적을 막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3] 이정보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수원에 독산성이 관방상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1750년(영조26) 6월 좌참찬 권적이 대리청정을 하던 사도세자에게 유형원이 지은 『반계수록』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자는 의견을 올렸다.[4] 『반계수록』에는 수원의 읍치를 '북평(北坪)'으로 옮겨 읍성을 축성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5]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조는 1750년 9월 온양온천에 행차하였다가 한양으로 환궁하는 도중에 독산성에 올라 독산성이 군사상의 요충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6] 독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 관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영조는 독산성에서 임진왜란 때의 일을 상고하면서 명나라의 은혜를 회상하였으며, 황경원에게 명하여 군기(軍器)를 살펴보게 하여 궁시(弓矢)와 검극(劍戟)·기고(旗鼓)등을 개수(改修)하도록 지시하였다. 독산성의 방비를 항상 튼튼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하여 1758년 김효대(金孝大)는 독산성이 임진왜란 당시 힘을 얻은 곳으로 예전 선조 때에 개축한 산성이며 방영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산성에 거주하는 백성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급복하여 의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효대는 산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방영을 설치한 후 무과 출신자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경사를 맞아 독산성이 강화도와 남한산성과 같은 보장의 중지로서 똑같이 우대하여야 하였다.[7] 영조는 김효대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게 하였는데, 독산성을 국가적 보장처

3)『承政院日記』영조 16년 8월 5일. "水原府使李鼎輔上疏…蓋本府處於江華·南漢之間 三面濱海 一面控扼三南要衝 而官居於平原曠野之中 無高山大川之險 脫有不虞 四面受敵 距府五里許 雖有禿城山 其小如斗 且無泉井 不可容近萬軍卒 倘築城於官府 與禿城爲掎角之勢 則可以爲關防禦賊之道 此前輩識務者之以築斯 爲此府第一務 而若非累萬財力 難可完役 故此所以因循式至于今也."

4)『英祖實錄』권71, 영조 26년 6월 경인.

5)『磻溪隧錄』補遺 권1 郡縣制.

6)『英祖實錄』卷72, 26年 9月 26日 乙丑.

7)『承政院日記』영조 34년 1월 27일. "上具布戎服 還宮時…孝大曰 本府禿城山城 卽壬辰倭亂得力之地 以此在昔宣廟朝 改築山城 兼設防營 而以山城居民生涯艱乏之故 別爲給復 使之依賴資生 朝家軫恤 有如此者 而卽者山城人有武科出身者 設置後創有之事 竊見江都南漢人登科者 例百除防之規 本府山城 亦是保障重地 似宜蒙一視之澤 以此論報該曹 則該曹以無前例不許矣 依兩都例施行 則似亦爲優恤激勵之道矣 上曰 該曹則以無前例不許 而依所達除防 因爲定式 可也."

와 동등하게 김효대의 의견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760년(영조36)에는 사도세자가 온양에 행차하였다가 돌아가던 도중 장마로 인해 황구지천을 건널 수 없게 되자 독산성에 올라가 하룻밤 유숙(留宿)하게 된다. 이 때 사도세자는 다음날 아침 진남루에 올라 활쏘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8] 사도세자는 산성을 둘러보고, "이 성은 들판 가운데 불룩하게 나와 무릇 이와 같으니 실로 높이 솟아난 곳이 있고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다. 적이 만약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침범한다면 반드시 낭패할 것이다. 권율의 대첩이 좋은 전례이다"라고 독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령을 내려 창고의 쌀 20석을 내어 수레를 호위하는 군병에게 나누어주고 성내 민인(民人)을 공궤(供饋)하였다.[9] 사도세자의 독산성 유숙은 이른바 '경진년(庚辰年) 경숙(經宿)'으로 불리면서 정조 때 있었던 대대적인 독산성 정비의 한 원인이 되었다.

3. 정조시대 관방체계 개편론과 독산성

정조는 즉위 초부터 서울의 방비를 위해 군영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總戎廳)을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만들어 경기 좌·우도 병마(兵馬)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쓸모없는 군사와 군량을 감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10] 그러나 대신들의 헌의가 제각기 달라 논의를 중단하기도 하였다.[11]

그러던 차에 1778년(정조2) 윤면동(尹冕東, 1728~?)이 도성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까지 정비해서 각 성(城)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정조의 관심을 끌었다.[12] 윤면동은 서울 도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도성 자체의 방어선, 성저(城底) 10리의 방어선, 파주·양주·수원·광주 남한산성·강화도로 이어지는 외곽 방어선 등 3중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윤면동은 수원의 군사력을 수어영에 예속시켜 동쪽과 남쪽의 길을 방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8) 서울大學校 奎章閣編, 『京畿道邑誌』1, 「水原府邑誌」, 山城.
9) 『華城誌』卷2, 「山城」禿城.
10) 『正祖實錄』卷5, 正祖2年 閏6月 辛未.
11) 『正祖實錄』卷5, 正祖2年 閏6月 壬午.
12) 『正祖實錄』卷6, 正祖2年 7月 丁未.



다. 정조는 윤면동의 상소를 비변사에 내려 품처하게 하였다.

1785년에는 유학 조익(趙士翼)이 상소하여 장부(帳簿)상에 허수(虛數)가 많은 수어청과 총융청이 나라의 큰 해가 되고 있으니 폐지한 후 남한산성은 광주 부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북한산성은 관성장(管城將)에게 맡기며, 수원 · 광주 · 양주 · 파주를 서울의 사보(四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13]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독산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처럼 수원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조는 수원부의 규모와 인구 등을 파악해 두고 훗날을 대비하는 등 수원부의 조건에 대해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14] 그러던 차에 1789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을 수원부 읍치자리(현재의 융릉)로 천봉하였고, 이에 따라 독산성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독산성이 현륭원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산성을 그대로 두어야할지 아니면 훼철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원소도감당상 정민시와 총호사 김익(金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정조는 직접 살펴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산성의 봉우리가 혈상(穴上)에서 바라보여 지근거리인 것 같지만 10리 정도 떨어져 있고 연화(煙火)의 기운이나 닭과 개 짖는 소리가 간섭하지 않으며, 병기를 저장해 둔 것도 이해(利害)를 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15] 그리고 독산성은 사도세자가 유숙(留宿)하였던 유적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1790년(정조14) 2월 원행(園幸)에서 독산성에 올라 간 정조는 독산성 운주당(運籌堂)에서 산성의 부로(父老)들을 위로하고 사도세자가 유숙하였을 때의 일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명을 내려 부로들에게 자급을 더하고 성내의 민호(民戶)는 각 호마다 미포(米包)를 지급하였다. 당시 독산성에는 128호가 거주하고 있었다.[16] 정조의 친심(親審)이후 독산성은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읍치에 성곽시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방상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3)『正祖實錄』卷20, 正祖9年 7月 癸酉.

14) 拙稿, 1999「正祖代 水原移邑과 以後의 變化樣相」『京畿史學』第三號.

15)『日省錄』正祖 13年 7月 13日 丁酉. "召見看山大臣及來待大臣閣臣都監堂上…民始曰 園所完奉之後 則禿城山城不當仍置矣 予問大臣之意何如 熤曰 臣意則山城相距稍遠 恐不必然矣…予曰 此則一番親審後欲決之 而山城樹頭 自穴上望見 雖似至近 而相距旣十里之遠 烟火之氣 鷄犬之聲 元無關涉 至如兵器藏置 似無利害之可論矣."

16)『承政院日記』정조 14년 2월 10일. "…敎曰 城中戶數爲幾何 爾胄對曰 爲一百二十八戶矣 其中能射者幾人 對曰 竝本邑將校 操弓者爲三十餘人矣…."

독산성은 1792년(정조16) 7월 장맛비에 성첩의 거반이 무너져 내리고, 산록(山麓) 또한 사태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 수원부사 이경무의 보고에 따르면 사태가 난 곳 가운데 원소에서 직접 보이는 곳이 4곳이나 되었다. 정조는 막중한 곳의 보결(補缺) 공역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며 우선 공석(空石 가마니)으로 개복(蓋覆)하고 수거물력은 독산성에 소재한 향곡 가운데 취모 환충차미(取耗還充次米) 100석과 본청유고전 1,000냥을 획급하여 해당 부사가 신속하게 수보하게 하였다.[17]

곧이어 정조는 독산성을 수축하도록 명하는데, 공역을 시작할 때 토지신에게 올리는 고유문을 직접 짓는[18] 한편 고유제의 절차와 참여인원까지 직접 지시하였다. 고유문을 직접 지은 이유는 독산성이 현륭원의 외금양지로서 현륭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명목상 독산성에 현륭원을 외호(外護)하는 역할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독산성의 수축물력을 이미 구획하였으나 부족할 것 같으니 특별히 필역한 후에 경기감영에 장청하여 획급해 줄 것을 미리 비변사에 알려주게 하고, 시역일자는 정한 후에 향축을 장청(狀請)하라고 경기감영에 분부하였다.[19]

그리하여 독산성은 1792년 7월 25일 공역을 시작하여 9월 13일에 쌓기를 마치고 20일간 회를 발라 벽돌을 덮었다. 약 70일 가량의 기간에 산성 공역을 모두 끝낸 것이다. 공역의 책임은 수원부 중군 이한흥(李漢興)과 대솔군관 민광록(閔光祿)이 패를 나누어 동역(董役)하였고, 투입된 인력은 수원부의 속오군과 각색 아병, 칠색군 등 5,031명이 각 1일씩 부역(赴役)하였으며, 그 외 각색 장수와 모군 등이 있었다.[20]

이 때 수축한 독산성의 규모를 보면, 성의 둘레가 1,004보 내에 신축한



17)『日省錄』正祖 16年 7月 10日 丁未. "總戎廳 以水原禿城山城 山麓沙汰處 修補物力劃給啓. 該廳啓言 卽接水原府使 李敬懋牒報 則禿城山城 今番潦雨 城堞居半崩頹 山麓亦多沙汰云 故發遣營校摘奸 則沙汰諸處中 園所通望處 爲四處矣 莫重之地 補缺之役 不容少緩 姑先以空石蓋覆 修擧物力 以禿城所在餉穀中 取耗還充次米一百石 及本廳留庫錢一千兩劃給 該府使之從速修補."

18)『弘齋全書』第22卷, 祭文4.

19)『日省錄』正祖 16年 7月 18日 乙卯. "定禿城山城告由祭品及祭文製進之式 仍命修築時 不足之需 自畿營狀請 劃給. 敎曰 水原禿城山城修築時 告由土神旣有前例 而今則事面尊嚴 府使爲獻官 中軍及邑內堂上宣薦朝官爲次獻 而香祝則香官往傳于畿營 自畿營定文察訪差員傳之 仍爲兼大祝 行祀祭品比前例 加羔一口飯與餠爲三品 祭文令內閣知製敎撰進事定式 今番當製下以此分付 又敎曰 水原山城修築物力 已區劃者似不足 特畢役 令畿營狀請劃給事 預令廟堂知悉 始役日子從便定日後 狀請香祝事 分付畿營"

20)『日省錄』正祖 16年 10月 3日 戊辰. "水原府使 李敬懋狀啓 以爲本府禿城山城改築之役 自去七月二十五日 專委於本府中軍前府使 李漢興 及帶率軍官折衝閔光祿 分牌董役 本月十三日畢築 塗灰二十日蓋甃完役 所築體城女墻及沙汰補築處 長廣把數後錄 修啓所入役軍則本府束伍軍 及各色牙兵 七色軍 合五千三十一名 各一日赴役 其外各色匠手及募軍等…."

체성이 732보, 수축한 것이 272보이다. 수문 3곳은 모두 개축하였고, 사태가 난 12곳은 길이 101보, 너비 108보로 돌을 채워 신축하였으며, 여장 309첩 모두를 신축하고 벽돌을 덮어 회를 발랐다. 남장대 6칸은 3척을 안쪽으로 옮겨 이건하면서 단청을 다시 하였다. 4곳의 문 가운데 남문은 8칸 문루를 갖추어 들보위에 회를 발랐고, 문의 확쇠 1개를 새로 갖췄다. 서문 역시 8칸 문루의 기와를 수보하였다. 북문과 동문의 좌우 석축을 고치고 문짝 2개씩을 다시 갖췄으며, 서문은 확쇠 1개를 새로 마련하였다.[21]

수축이라 하지만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내용의 공역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정조는 성역을 일신하는데 불과 수개월 안에 끝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시역할 때 고유제는 이미 고례를 썼으니 완역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며 날짜를 가려 설행하는데 제문은 정조가 역시 직접 지었다. 헌관과 여러 집사는 고유제 때의 예로 하였다. 정조는 감동을 한 중군 이한흥을 가자(加資)하고, 군관과 읍교(邑校) 색리들에게 시상하면서 공역을 마무리하였다.

정조는 독산성이 소중한 것은 원침에서 밀통(密通)하고 1760년 사도세자가 주숙(駐宿)한 곳이기 때문이며, 장대인 진남루는 예전에 자신이 직접 등림한 곳이니 중수한 지금 마땅히 비문을 지어 내릴 것이니 원임 각신 중에서 좌상 채제공이 써서 올리라 하였다.[22] 그리고 1792년 10월 7일 성황신에게 독산성의 수개를 알리는 고유제를 올렸다.[23] 1792년의 독산성 수축은 이듬해 창설되는 장용영의 주둔지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4, 화성 축성과 독산성 지휘체계의 개편

독성별장(禿城別將)은 총융청에서 차출하다가 1683년 수원부사 원만춘

21)『日省錄』正祖 16年 10月 3日 戊辰. "城周回一千四步內 體城新築七百三十二步 修築二百七十二步 水門三處全數改築 沙汰十二處合長一百一步 廣一百八步 擔石新築 女城三百九堞全數新築蓋甓塗灰 南將臺六間向內三尺移建改丹靑 南門樓八間樑上塗灰 門確金一箇新備 西門樓八間修補蓋瓦 北門左右改石築 城門二隻新備 東門左右改石築 城門二隻新備 門確金一箇新備."

22) 위의 책. "…敎以城役之一新 而告成於數朔之內 極可幸也 始役告由旣用古例 完役亦當爲之 令該曹卜日設行 祭文亦當親撰 獻官諸執事依初告由例 監董中軍李漢興加資 軍官及邑校賞加 該吏帖加 山城所重密通於園寢 又是庚辰駐宿之所也 將臺卽鎭南樓 而昔年登臨之所也 今聞修葺當製下碑文 原任閣臣中左相書進事分付."

23)『內閣日曆』正祖 16年 10月 7日 壬申. "御製禿城山城修改後告由 城隍神文 諏日之吉 廼營疆理 廼告厥成 百堵千雉 地以增重 儼若大都 維萬斯年 壯我鴻圖."

의 요청에 따라 수원부의 자벽과(自辟窠 장관이 독단으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자리)로 임명되었다.[24] 1793년 1월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독산성의 위상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화성유수는 8도의 감영과 같은 형태의 독자적인 부대를 설치하게 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독산성에 설치되었던 방어영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했다. 방어영의 후보지는 죽산 장단 부평 인천 남양이었고, 남양으로 결정되었다. 남양은 관방(關防)과 군교(軍校)에 큰 변경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양부로 방어영을 옮겨가면 경기좌방어사가 옮겨가게 되므로 독산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했다. 병조판서 이문원은 독성중군의 이력은 대흥산성의 전례를 써야하나 본부의 유수가 송도에 비해 1품계를 더한 정2품이므로 중군 또한 계급을 조금 높여 변지수령이상으로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단지 군사를 모아 점검하는 일만 관장하고 토포사에 이르러서는 경기토포사에 관계되니 신설하는 방영에 일체를 이설하고, 수원유수부 내의 소요를 금하는 일은 마땅히 송도와 강화도의 예에 따라 수원유수부에서 거행하게 하였다.[25] 독성을 지키는 수장의 지위는 올라갔으나 역할은 축소되었던 것이다. 방어영 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10여일 뒤에 제정된 「장용영진내외영신정절목」에 의해 독산성은 장용영 외영에 소속되었다.[26] 화성유수는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되는데 독산성까지 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 때 독산성 군사의 규모는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25명을, 본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인, 수첩군관 130인, 아병 2초, 봉족군(奉足軍) 400명, 별무사 1523명과 합해서 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본성에 전속시켰으며, 그 중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25명은 본래 쌀을 납부하는 수미군인들이었으니,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치하게 하였다. 정민시와 윤행임, 조심태는 2월 26일 독산성의 군제를 비롯한 마보군제 1건, 수어청과 총융청의 군

24)『肅宗實錄』권14, 숙종 9년 7월 정축.

25)『承政院日記』정조 17년 1월 16일.

26)『日省錄』正祖 17年 1月 25日 己未. "壯勇營進內外營新定節目. …禿城山城旣係關防重地 且是軍餉所峙 則拱禦之方 不可疏虞 在前總廳所管壯抄二哨 牙兵一哨 屯壯抄六十八名 軍需保一百二十五名 竝本城所管募入軍官三十人 守堞軍官一百三十人 牙名二哨 保軍四百名 別武士一千五百二十三名 而以守城名色專屬本城 而其中壯抄二哨 牙兵一哨 屯壯抄六十八名 軍需保一百二十五名 自是納米之軍 納米則自外營捧留."

제에 속한 가령 마련 1건, 본부수성군제 1건을 올려 정조가 열람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27]

그런데 1796년 7월 수원유수 조심태는 전반기 독산성 중군의 포폄 계본을 올리면서 독산성의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장용영의 내영과 외영의 제도에는 중군이 없기 때문에 독산성의 수장을 방어영이었을 때의 수원부중군이란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명실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원부에 쌀을 거두는 속오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산성 중군의 칭호를 북한산성 관성장의 예에 따라 칭호하자는 의견이었다.[28]

이 의견은 1798년 10월 제정된 비변사가 아뢴 「장용외영 부근 5읍군병 합속절목」에 따라 독성별장(禿城別將)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29] 그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던 수원부의 중군과 독산성 수성장(守城將)을 모두 없애고 독산성을 지키는 수장의 명호를 독성별장이라 하여 따로 차견(差遣)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성별장은 「장용외영 부근 5읍군병 합속절목」에 따라 2,123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화성을 협수하게 되었다.[30] 독성별장은 화성의 장락5위 체제하에서 독성위장(禿城衛將)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본대(本隊)에서 벗어난 별동부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31]

이 때 독성별장은 장용내영의 자벽과로 차출하는 자리가 되었으나 군적(軍籍)에 관한 일은 장용외영에 속해 있어서 인신(印信)을 외영에서 조급하였기 때문에 지휘계통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32] 그래서 장용외사 서유린은 독성별장이 부임하게 되면 현륭원 홍살문 밖에서 숙배하고 또한 봉안각을 숙배하는 것을 정식으로 만들어 영화도찰방의 예에 따르는 절목을 만들

27)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2월 26일. "上御誠正閣 藥房入診來待諸臣同爲入侍時…上敎民始等曰 軍制假令 有錄出者 入之 尹行任 以馬步軍制一件 守·摠軍制屬假令磨鍊一件 本府守城軍制一件 禿城軍制一件奉進 上御覽訖…"

28)『承政院日記』정조 20년 7월 16일. "…以水原留守趙心泰 今春夏等 禿城中軍褒貶啓本 判付內 啓下壯勇營爲彌 本府今爲壯勇外營 而內營外營之制 旣無中軍 則以前日防營時 本府中軍之稱號 名實不副旀不喩 若以本府之猶有收米束伍軍 謂不可祛其中營之稱云爾 則亦甚不然 禿城中軍 無關於本府 以此以彼 合有釐正之擧 依北漢管城將例 稱號爲可乎…."

29)『正祖實錄』卷 49, 22年 10月 19日 己酉.

30)『日省錄』正祖 22年 10月 19日 己酉. "備邊司以壯勇外營附近五邑軍兵合屬節目啓…禿城山城 密邇仙廋 掎角 本城則拱護之責不輕而重 且有各樣軍官軍保之屬於城者 爲二千一百二十三名 此則使外使計本城堞數排丁磨鍊成出守城節目 追後修啓."

31)『承政院日記』순조 2년 2월 10일. "…華西衛將徐洛修 蒼龍衛將李敎源 八達衛將卞世義 長安衛將吳翰源 協守衛將尹象圭 新豐衛將朴思英 禿城衛將張世紘…以上減下事承傳."

32)『日省錄』正祖 22年 11月 12日 辛未. "壯勇外使 徐有隣啓言 禿城山城別將 雖自內營自辟差出 而軍籍凡事皆屬外營矣 印信造給 節目撰出卽是次第事 而至於赴任後 園所紅箭門外肅拜 及奉安閣肅拜 不可無一番定式 依迎華察訪例 一體擧行之意 請分付 從之."

자는 의견을 내었다. 독산성 별장의 임무가 현륭원을 호위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지시키자는 것이었다.

1800년 정조의 서거로 인해 정조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1801년 독성별장으로 부임한 유경(劉瓊)이 도임(到任)하였다는 장계를 수원유수 이만수가 올렸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독산성 별장이 사조(辭朝)하는 직임이 아닌데 사조로 말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으며, 도임장계는 더욱 부당하다면서 장계를 되돌려 보냈다.[33] 이만수는 전례에 따라 장계를 올렸을 것인데도 조정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독성별장의 지위를 외임(外任)이 아닌 장용영 내부의 인사문제로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802년 1월 장용영이 혁파되자 독성별장에게 부여되었던 독성위장의 소임은 없어졌으나 장용영을 대체한 총리영의 겸총(兼摠)이란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부장(部將) 67원은 초관(哨官)으로써 개칭하고, 장관(將官)과 군교(軍校)의 명호(名號)는 모두 예전대로 하였다. 독성 별장은 건릉 화소에 대한 식목도차사원을 겸대하기도 하였는데, 현륭원 조성 때부터 융·건릉 일대의 식목과 파종을 담당하였던 장세환을 독성별장에 임명하여 잉임(仍任)시켰기 때문이다.[34] 그리하여 독산성에 소속된 관예(官隷)들의 수고로움은 능원군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듬해 독성별장 장세환이 사망하자 식목차사원의 직책은 수원 판관이 겸대하여 능원침 관리들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였다.[35]

1805년 김조순(金祖淳)은 독성별장을 수원부의 중군이 겸관하게 하자는 청을 올렸다. 김조순은 독산성의 감독을 위해 산성에서 유숙하면서 독산성이 삼남을 제어하는 요충지임을 인식하였고, 독산성과 화성을 비교해 보니 화성은 넓기는 하지만 지대가 낮아 험하지 않아 송도의 대흥산성과 같이 믿고 의지할 곳은 독산성이며, 능원을 모신 이래로 독산성의 중요함이 더욱 커졌다고 보았다. 수원이 유수영으로 승격된 후 단진(單鎭)으로 별장이 관할하게 되었으나 오랫동안 근무하는 자리에 속하게 되어서는 진으로서



33) 『日省錄』 純祖 1年 1月 22日 己亥. "水原留守 李晩秀以禿城山城別將 劉瓊赴任事馳啓 敎以旣非辭朝之職 則曰以辭朝何也 到任狀啓 尤爲不當 此狀啓還下送."

34) 『日省錄』 純祖 3年 6月 28日 辛卯. "健陵奉審後入來也 象奎曰 陵所左右夾近處 種木猶有未盡處 留守以爲植木之役 尙未就緖植木都差使員 禿城別將張世紈 瓜期將近植木之役付之生手 誠爲悶然云矣 予曰仍任則爲好耶 象奎曰 自上爲植木之役仍任 則似無不可矣 予曰仍任也."

35) 『日省錄』 純祖 4年 5月 5日 癸巳. "水原留守 曺允大狀啓以爲禿城別將 張世紈身死 所帶植木差使員何以爲之 敎以旣有他陵寢例 則不必別差植木差員 而昔年特置之 聖意有在 不可仍而廢閣 以本府判官永兼植木差員 凡於兩寢種植剪補等役 與寢官眼同爲之事 定式施行事回論."

의 지위와 명망이 부족해졌으니 예전 수원부사시절처럼 중군이 별장의 임무를 겸관하여 왕래하며 통할하게 하되 성을 수리하거나 공해(公廨)를 고치는 공역이 있을 때에는 수원유수부에서 살펴 도와주면 미리 준비하여 닥쳐올 재앙을 막음)하는 뜻이 될 것이라며 비변사에 품처하도록 건의하였다.[36]

비변사는 김조순의 주장을 검토하여 이듬해 3월 29일 영의정 이병모가 김조순의 의견이 대변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관례로 돌리는 것이므로 일이 매우 편하고 좋다며 병조와 수원유수에게 분부하라고 청하였다.[37] 그리고 6월에는 병조에서 수원중군이 독성별장을 겸관하는 문제에 대해 현 독성별장 이흥윤의 임기가 찼으므로 감하하고 수원부 중군으로 하여금 독성수성장을 겸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흥윤은 감하고 이상겸을 독성수성장으로 단부(單付)하였다.[38] 이후로는 화성유수영의 중군이 독산성을 관할하게 되었다.

5. 맺음말

18세기 들어 가장 큰 국가적 병란인 이인좌의 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보의 중진인 수원의 위상이 확인되고, 독산성은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었다. 영조와 사도세자가 잇달아 독산성에 올랐던 것은 독산성이 가진 관방상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정조가 즉위한 이해 수도방어체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수원은 경기남부지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거론 되었다. 1789년 사도세자를 수원읍치 자리로 모시면서 시작된 수원신읍의 건설은 결국 새로운 수원읍성을 필요로 하였지만 군사전략 상 중

36)『日省錄』純祖 5年 10月 9日 戊子. "領敦寧 金祖淳啓言 臣於今番董役 連住禿城山城矣 蓋此山城形勝控扼三南衝要 昔自權慄拒倭築城設鎭 以至于今而脫有緩急 水原城闕而地庫無險 可恃勢將 以禿城爲守則其爲保障不啻如大興之於松京 而況奉陵園以來 此地之緊重 尤有別焉 在前水原之爲府使時 則中軍兼別將 常住山城 一自陞留之後 遂爲單鎭 別將而鎭 況至爲殘薄 其於城堞樓櫓廨宇器械之繕葺措備 初非擬議如 又屬於京外久勤之窠 則其地望 亦不足以鎭 係鎭民之心 臣意則時別將準瓜之後 勿以久勤差代 依前以該府中軍兼管別將之任 使之往來 留住專意統轄 若當繕城葺廨之大役 則自本府亦爲照管助力 實合桑土之義 而事係官制 請下詢廟堂處之 從之."

37)『日省錄』純祖6年 3月 29日 丁丑. "領議政 李秉模啓言 卽見領敦寧 金祖淳擧條 … 因其舊貫事甚便好依此施行之意 請分付該曹 及該留守 從之."

38)『承政院日記』순조 6년 6월 22일. "兵批啓曰 禿城別將準瓜後 勿以久勤差送 以水原中軍 依前兼管事 頃已定奪矣 禿城別將李興潤 今已箇滿 減下 以該府中軍 兼禿城守城將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禿城別將李興潤減下 禿城守城將李尙謙單付…."

요한 위치에 있는 독산성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

정조시대 새로운 읍치에 화성이 축성되었음에도 독산성은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독산성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794년 1월 화성성역이 시작되면서 독산성 소속 군사들도 성역에 참가하였고, 1796년 화성이 완공된 후에는 화성이 장용외영의 주성(主城)이 되었다. 독산성은 별장이 임명되어 현륭원을 호위하는 독립적인 부대로서 화성과 협수체제를 구축하여 경기남부의 방비를 확고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00년 정조의 서거이후 정조가 추진하던 여러 정책들이 중지되거나 예전으로 되돌려지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1802년 1월 단행된 장용영 혁파는 화성중심의 경기남부지역 방어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장용외영에 비해 대폭 감축된 총리영이 설치되었으나 군병의 자원이 유수부 승격 이전 상태로 되돌려 졌으며, 독산성의 관리도 김조순의 주청에 따라 1806년부터는 수원유수부의 중군이 겸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정조가 화성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던 장락오위 체제에 의한 경기남부지역 방어체제는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오산 죽미령 유엔군초전비와 오산전투 (죽미령 · 갈곶리)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남경식 |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불법 점령하며 겪게 된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압제통치를 경험한 것은 민족적 수치였다. 이에 우리 한민족은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한민족의 일본으로부터의 광복은 주체적인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낸 것이 아니어서 한반도는 힘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그로인해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하게 된다. 결국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과 무단 점령은 광복이 되었어도 하나의 국가로 원상회복이 되지 못한 채 남북분단이란 고착적인 민족 갈등으로 변질되게 된 큰 원인이 된 것이다.

한반도 북부에 진주한 공산국가 소련의 영향하의 북한은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장악하였고, 소련의 지원 하에 김일성은 공산주의로 남북한을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무력 기습 전면전을 일으킨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는 변변한 대비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6 · 25 한국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일성이 도발한 6 · 25 한국전쟁 중에서도 오산에서 북한 인민군과 싸운 유엔군과 한국군의 오산전투(죽미령 · 갈곶리)와 유엔군의 오산 죽미령전투 기념비인 유엔군초전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유엔군초전비 건립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기습 남침하여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기세를 몰아 남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이 구성된다. 그 유엔군의 일원으로 1950년 7월 5일 미군 제24사단 소속 보병부대 및 제52야포대대 소속 1개 중대로 편성된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전투부대 540명이 북한 인민군의 남하에 맞서 죽미령에서 싸운다.

이곳 오산 죽미령은 최초의 유엔군과 북한군이 충돌한 곳인데, 유엔군으로서 미군이 참전했기에, 미군이 북한군과 최초로 조우한 곳이기도 하다.

이 오산 전투에서 한국군 제17연대 9중대가 갈곶리에서 죽미령의 스미스부대와 연합작전으로 혈전을 하며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며 같이 피 흘리기도 하였다.

이 전투에서 540명의 장병이 죽미령에서 북한의 인민군과 최초의 전투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5년 7월 5일 미군 제24사단과 장병들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유엔군초전비의 규모는 높이 19.5m, 동상 높이 3.6m로 조형 기념물은 진지의 구축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일영 화백이 제작하였다.



》 (구) 유엔군초전기념비



》 유엔군초전기념비

이곳 죽미령에 세워진 죽미령 유엔군초전비는 내삼미동에 위치하고, 이 기념비가 위치한 곳이 협소해 1981년 전적지 개발 계획에 따라 (구)기념비 앞산에 16,500㎡부지를 마련, 새로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새로 세운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북괴의 이리떼 38선을 넘으니 자유 수호 위해 유엔은 일어나다. 폭력엔 폭력을 다짐하고 급히 달려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앞장서 죽미고개에 서고 한국군 제17연대 이에 따르니 한 · 미 연합작전의 서막은 열리다. 혈전 6시간 15분 피바다 이루고 화선은 낙동강으로 이어지니, 한 품은 고혼 이곳에 잠드니 혈맹의 우의 어찌 잊으랴."

이 전투에서 150여명의 유엔군 소속 미군이 전사하고 장교 5명, 사병 26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보았다. 오산지역은 1950년 7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 18일 동안 북한 공산당에 의한 지배를 받았고, 9월 24일 퇴각하였다.

매년 7월 5일 장병들의 넋을 위로 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기념비 건립일은 1982년 4월 6일이다.

이 기간 동안 희생된 민간인이 많다. 별도로 현재 이분들을 위해 위령제를 수청동 현충탑에서 매년 10월말 경 오산시에서 주관하여 올리는데 진행은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한다.



》 오산 죽미령 유엔군초전비 전경

오산 죽미령 전투 상황

잠시 6 · 25전쟁 당시 죽미령 전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수원과 평택사이에 있는 경부국도선상의 오산지역은 유엔군의 주축을 이룬 미 지상군의 선견부대가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한 곳이다.

1950년 6월 28일 유엔의 신속한 한국지원결정에 따라 일본 도쿄(동경)의 미 극동군 총사령부가 워싱턴으로부터 미 지상군 투입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은 것은 1950년 6월 30일이다.

한국 전선에 투입하게 된 주일 미 지상군은 제7사단, 제1기병사단, 제25사단, 제24사단 등이었는데, 그 중 선견부대(제24사단 제2연대 1대대)를 부산으로 공수하고, 나머지 주력부대는 해상 기동으로 파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7월 1일 부산으로 공수된 24사단의 스미스부대는 1950년 7월 2일 대전으로 북상하여 안성 평택 선에 진지를 구축하여 후속 주력부대의 내한을 기다리며 지연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1950년 7월 2일, 대전역에 도착하는 스미스기동부대

그런데 수원이 북한 인민군에 점령당한 그 다음날인 1950년 7월 5일 아침, 미군의 스미스부대는 오산 북쪽의 죽미령에서 남진하는 북한 인민군을 맞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미 지상군의 첫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오산 죽미령 전투이다.

스미스부대는 원래 대대장 찰스 B.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따 스미스기동부대라고 하였는데 줄여서 스미스부대라고 부르고 있다. 스미스부대는 완전 편성 부대 조직의 정수에 모자란 2개 소총중대, 본부중대 일부, 그리고 통신소대로 이루어졌다. 죽미령 방어선에는 스미스부대 외에 밀러 O. 페리 중령이 지휘하는 미 제52야전 포병대대 일부 병력도 투입되었다. 이 보병대와 포병대를 스미스 중령이 이끌고 전투에 임했다. 스미스 중령이 이끈 중미령전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스미스부대의 보병장교 17명과 보병사병 389명, 합 406명. 페리 미 제52포병대의 포병장교 9명과 포병사병 125명, 합134명. 도합 미군 참전 수는 총 540명이었다.

자세히 시간별로 알아본다

미 지상군은 오산 부근에 투입되어 1950년 7월 4일에서 5일까지 전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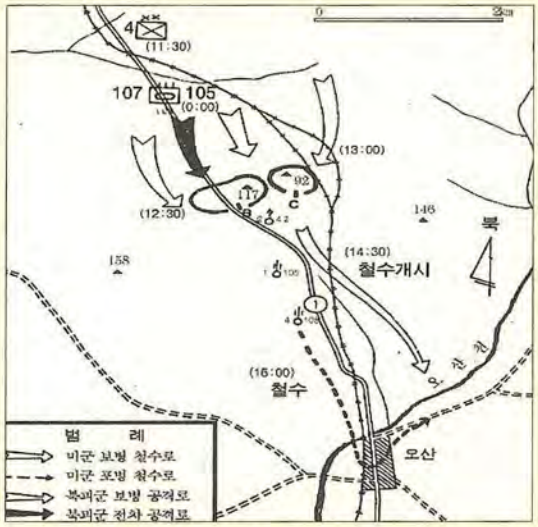
북한 인민군은 서울 한강 이북을 점령한 3사단과 4사단 병력이 1950년 7월 2일 끊어진 한강 다리를 수리한 다음 영등포를 점령하며 남쪽으로 침공을 계속해 7월 4일에는 수원을 점령하였다.

한국군은 수원을 방어할 마지막 부대로 아군 제1사단과 제3사단을 지명하고, 아군의 주

력부대가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북한 인민군을 저지하고 있던 제1사단은 동북쪽 통로에서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이곳으로 철수한 육사생도들과 함께 풍덕천(수원 동북쪽 10km)으로 진격하여 진지 구축에 들어갔다.

1950년 7월 4일 오전 6시 북한 인민군은 풍덕천과 안양에 대해 일제히 공격을 하였는데, 경부국도를 따라 남하한 북한 인민군 제4사단의 선두부대는 전차 12대를 앞세우고 안양 부근의 아군 진지를 격파하고 후방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전세가 어려워지자 7월 4일 한국육군본부도 수원을 포기하고 평택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평택에 있던 스미스 부대도 7월 4일 밤 12시가 돼서야 오산으로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스미스 중령은 징발된 차량에 병력을 탑승시키고 출발하려 했으나 운전사들이 달아나버려 운전사를 보충하느라 늦어지게 되었으며, 이동하는 도로가 국군과 남하하는 피난민들로 가득 차 스미스부대가 오산 죽미령까지 오는데 2시간 30분이나 걸렸다. 죽미령은 능선이 동서로 뻗어 있으며, 능선 중앙에는 국도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적을 저지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이었다. 1950년 7월 5일 새벽이 되자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는 가랑비로 변하면서 비가 잦아지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좋지 않은 때였다. 동트기 전 야전식량으로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치고 적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 1950년 7월 5일 스미스특수임무부대의 오산 죽미령 작전도

차츰 시계가 좋아지며 수원까지 보이던 시각은 스미스부대가 북한 인민군과 첫 조우한 1950년 7월 5일 오전 7시경이었다. 8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의 제4사단 16 · 18연대 4000여명이 수원 쪽에서 스미스부대가 포진하고 있는 죽미령을 향해 진격해옴으로써 전투가 벌어졌다.



》 1950년 7월 5일 오전 8시 16분 오산 죽미령에서 초탄을 발사하는 미 제 520야포대대

북한 인민군이 죽미령을 올라오는 순간 아군의 포병이 발사한 포탄이 작렬하였다. 그러

나 적의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전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왔다. 북한 인민군의 전차대는 아군의 다양한 공격에도 유유히 보병진지를 통과해 죽미령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때 40여 분간의 전투에서 20여명의 피해를 보면서도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미군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병진지를 통과한 북한 인민군의 전차들이 죽미령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미군은 오전8시15분경 보유무기 중 가장 화력이 강한 105mm 곡사포의 대전차 포탄으로 북한 인민군의 대전차(탱크T-34) 2대를 격파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던 대전차포탄 6발을 전부 소모하자 나머지 전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105mm 포대의 포병 사격으로 북한 인민군을 공격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었다. 무기의 부족으로 중과부적이 된 것이다.

죽미령전투는 차츰 근접전으로 화하기 시작하였는데, 22발의 바주카포탄을 얻어맞은 북한 인민군 전차는 끄떡도 하지 않고 기동해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관총으로 응사하며 용전분투하다가 북한 인민군 전차병의 다발총탄에 맞아 전사한 켄넌트 샤드릭 일등병은 미군 보병의 첫 전사자로 기록되고 있다. 75mm 무반동총 그리고 2.36인치 바주카포도 북한 인민군의 전차 대열을 완전히 저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 전투로 페리 중령이 부상했으나 후송을 거절하고 전투를 진두지휘했다. 10분 후에 1개 반의 북한군 전차대가 고개를 내려오자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진지를 이탈하여 도망쳤다. 그러나 장교들은 동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포수가 되어 적의 전차 1대를 파괴하였다. 이것을 본 사병들도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겨우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산 죽미령전투는 더욱 격렬해져 1950년 7월 5일 오전 9시경에 인민군의 33대의 전차가 나타나자 겁에 질린 일부 병사들이 진지에서 이탈하는 가운데에서 피아군 간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국도를 따라 일렬종대로 접근해 오고 있던 북한 인민군 전차대와 후속하는 차량부대 및 보병부대는 미군 포병부대의 맹렬한 사격으로 인해 차량이 불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탄에 박살이 난 북한 인민군들의 시체가 허공에 난무하는 등 처참한 참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포격을 피하기 위해 국도 양변으로 산개한 북한 인민군은 죽미령 동쪽의 뱀골(92m) 능선으로 침입하여 미군들의 방어선을 측면에서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선에서 권총을 빼들고 지휘하던 스미스 중령은 곁에서 불을 뿜던 기관총 사수가 적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그 자신이 그 기관총을 들고 계속 총신을 휘두르며 사격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오후 2시쯤 북한 인민군은 10배가량 되는 우세한 병력으로 삼면에서 공격해 왔다. 이에 스미스부대원들은 사투를 계속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불리해져 한 시간 후면

전 대원이 전멸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군들의 퇴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실탄이 동났음은 물론 적 북한 인민군의 포사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죽미령을 우회한 북한 인민군들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게 된 스미스 중령은 어쩔 수 없이 예하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안성과 평택 간을 거쳐 천안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그 시각이 1950년 7월 5일 오후 2시 40분이었다. 철수 순서는 C중대, 의무반, 대대본부, B중대 순이었다. 철수로는 철로 동쪽의 오산으로 이어지는 남북으로 뻗은 능선이었다. 적이 고개를 넘어 오산으로 진출하고 있어 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로를 건너 철수하게 되었다. 화력 지원이 없는 주간에 철수하게 되어 적의 공격을 받으며 철수해야 했기에 피해가 컸다. 미군은 최초의 전투에서 540명의 보병과 포병 중에서 150명이 전사하고, 장교 5명, 사병 26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보았다.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한 종군기자는 '스미스부대 전멸'이라는 기사를 써 보냈다 한다. 이 기사가 전 세계에 퍼지자 북한 인민군 공격이 내전 수준이 아닌 제2차 대전의 승전국 미군을 압도할 만한 잘 계획된 공산주의 팽창을 위한 전쟁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전에서 최초의 지상전을 벌였던 스미스 중령은 그 해 1950년 11월말 전출 명령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1967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해서 아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살다가 2004년 5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한다.

이러한 남아있는 전투 기록으로 보면 북한 인민군의 남진을 쉽게 저지할 수 있으리라는 미군의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부대원들도 미군이 전선에 나타난 것을 알면 북한 인민군이 겁을 먹고 달아날 것이라는 맥아더 원수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봐진다.

북한 인민군과의 첫 지상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은 미군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북한 인민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스미스부대와의 최초 교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군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남침 공산화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전투라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산 갈곶리 전투 상황

한국군의 오산전투 참여 상황을 보도록 하자

황해도 웅진반도에서 철수한 한국군 제17연대가 스미스부대를 지원할 임무를 띠고 오산으로 이동한다. 17연대는 LST와 민간어선을 이용하여 웅진반도에서 1950년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인천으로 철수한다. 그러나 17연대의 피해는 적지 않아 113명이 전

사했고 371명이 부상했으며 64명이 실종됐다. 그리고 인천에 상륙한 부대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일부 병력은 트럭으로 영등포와 수원을 경유해 대전에 집결했고 잔여부대는 걸어서 혹은 열차편으로 대전에 있는 본대와 합류하였다.

대전에 집결한 제17연대의 병력은 1200여명이었으며, 현지에서 2500명의 신병을 보충 받아 재편성하였다. 편성을 마친 제17연대는 연대장 백인엽 대령의 지휘 하에 하루의 전투훈련과 휴식을 가진 후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제17연대는 1950년 7월 2일 기차로 대전을 출발하여 평택에 도착한 다음 도보로 오산까지 전진하였다.

그러나, 17연대는 7월 3일 오전 평택에서 아군에 수송될 보급품의 하역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3시쯤 호주 공군기의 편대가 나타나더니, 이 화차를 폭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적의 열차로 오판하여 오폭한 것이다. 이 오폭으로 평택역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평택 시내의 건물과 인명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제17연대장 백인엽 대령도 부상을 당해 후송 조치되었다. 조종사가 한국의 지리에 어둡다보니까 일어난 조종사 과오였다. 강력한 항의로 시정됐다. 이렇게 17연대는 싸우기도 전에 피해를 입는다.

국군 제17연대의 배치는 육군본부 및 제1군단 명령에 따른 것인데, 평택 서정리에서 8km를 북상하여 오산 남쪽 1.5km지점인 갈곶리 일대의 구릉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 1950년 7월 4일 새벽 육군본부는 한강 방어선이 무너져 국군 주력이 철수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제17연대를 새로 창설되는 제1군단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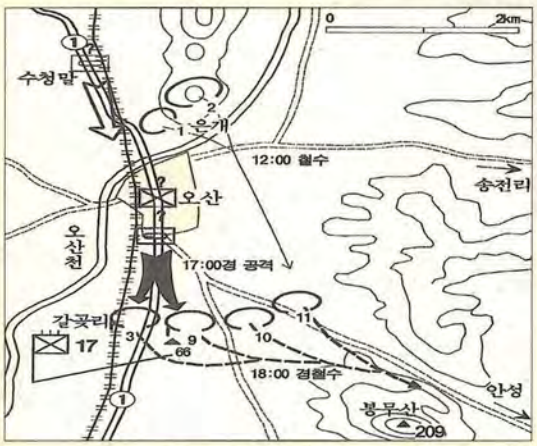
제17연대가 7월 4일 오전 5시쯤 이동을 개시하여 오산에 진지를 구축한 이날 오후 스미스 중령 일행이 제17연대 지휘소로 와 연대장 직무대리인 김희준 중령에게 오산의 북쪽 죽미령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병력을 배치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병사들의 피로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 부대가 남침하는 북한 인민군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 배치되었으나 초기에 지휘 통일의 결여로 각자 작전을 수행하여 북한 인민군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1950년 7월 5일 오전 9시 북한 전차대가 죽미령에 포진한 스미스부대 진지를 통과해 오산으로 남진을 계속해 제17연대 제1중대 진지부근을 통과 했다. 적 전차대가 나타나자 제1중대는 기관총과 2.36인치 로켓으로 공격했으



나 꿈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당해 제1소대장 이규환 중위가 중상을 입고, 제2소대장 박만업 중위도 총상을 입었다. 이에 아군들은 연대 본부가 있는 갈곶리로 철수하였다.

1950년 7월 5일 오전 11시쯤 북한군 전차대가 주진지인 갈곶리에 나타나자 연대는 즉각 81mm 박격포로 공격했지만 포격에 놀란 선두 전차 4대가 갈곶교에 이르러 기관총을 난사해왔다. 이에 전차공격 소대장으로 임명된 윤종환 중위는 각 중대에서 차출된 2.36인치 6문을 2문 1개 조로 편성하여 적을 공격하였다. 적 전차를 파괴시키지 못하자 능선 너머로 몸을 숨겼으나 곧 이어 적 전차서 발포한 포탄이 작렬하고 기관총탄이 날아왔다. 제9중대 지역에 있던 제3대대 중화기 중대장 정규환 대위는 2.36인치 로켓이 적 전차를 파괴시키지 못하자 제3대대 부대대장 강은덕 대위와 함께 적 전차에 접근하여 수류탄을 명중시켰으나 허사였다. 적의 선두전차는 아군을 공격하면서 평택 서정리를 향해 남하하였다.



》 오산 갈곶리 작전도(1950년7월5일

오후 5시쯤에는 적의 보병부대가 전차 3대를 선두로 차량에 탑승한 채 아군의 연대 진지로 접근하고 있었다. 적들이 1km까지 접근하자 박격포와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북한 인민군은 도로 가까이 있는 66고지를 공격하였다. 적의 주공격을 받았던 제9중대는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제1소대 오윤근 중위 지휘하의 33명의 소대원이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소대장이 전사하자 분산 철수하고, 3개 소대를 일선에 배치한 제3중대도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을 당할 수 없었다. 연대장 직무대리인 김희준 중령은 1번 도로 부근에 배치된 2개 중대가 분산 철수하게 되자 퇴각을 결심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5일 오후 6시쯤 연대 주력은 평택과 안성 중간지역을 통과해 성환으로 빠져나왔고, 제1대대장을 포함한 일부 병력은 평택으로 철수했다. 오산에서 철수한 제17연대는 그 후 제1군단의 수도 사단에 배속되었다.

죽미령 전투 후 오산 상황과 전투의 의의

이로서 오산지역은 적 북한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민군은 2개월 18일간 오산지역을 지배하다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보급로가 끊기고 미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퇴각하기 시작한다. 1950 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31연대 제2대대는 인민군 전차대와 수원-오산간 국도 및 철로 변 지대에서 전투하였고, 1950년 9월 28일까지 인민군의 모든 진지를 탈환하였다.

서울 수복 후 3개월 10일 만에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7일 오산을 다시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 오산지역의 중공군을 물리치고 1951년 1월 16일 오산을 재탈환하게 된다.

6·25전쟁(한국전쟁)은 전 국토가 전쟁터이었으나 최초의 전투가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시작된 곳이 오산이므로 오산 죽미령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전쟁이었다. 남북한에서 150만의 사망자와 360만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온 국토가 파괴되어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민족 내부에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한 대립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도 김일성은 민족의 씻을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자인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이 한국전쟁 최초의 전투를 담당하였고, 인명피해를 입은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눈다는 혈맹의 동맹군으로 공동방위의 필요성을 공감한 때문이다. 북한군도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제4사단 문화담당 부사단장을 포함하여 전사자 42명, 부상 85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전차 4대를 잃었다.

한국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오산지역에서의 전투양상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국군, 북한 인민군, 유엔군(미군), 중공군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싸웠고 소련은 북한 인민군을 지원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산지역은 1950년 7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 18일 동안 공산당에 의한 인민위원회를 경험했다. 마을 인민위원회는 인민위원장, 여맹위원장, 서기장, 자위대장 등이 선출되었는데 새로 선출된 인물은 다른 지역에서 온 좌익계 사람들이었다. 당시 오산리에 인민위원회 사무실이 있었고 주민의 권유로 총대를 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혈연집단과 씨족구성이 강한 이곳에서는 마을 청년들을 도피시켜 의용군 모집에 응한 숫자는 적었다. 토착좌익 활동가들이 농민위원회나 민청위원장을 맡기는 하였으나, 의용군 지원을 권유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징집하지는 못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주도하에 토지개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으나 인민군은 수확고를 확인하여 현물세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모든 수확 작물 잡곡 심지어는 과실까지도 25%를 부과하는 현물세는 일제시대 미곡만을 공출 당했던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빈농층은 잠시 동안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도 있었으나 자작농으로 바뀔 수는 없었다.

이러한 느슨한 온정적인 점령지 상황 하에서도 극히 일부 좌익의 인민군 적 치하에서의 반동적 학살 준동은 같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그 후 다시 아군의 실지 재탈환으로 다시 좌익의 준동자를 처결하는

민족적 상흔을 주민들 서로에게 안기며 비극의 상처는 커지게 되었다. 이 같은 증언을 그 당시 상황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2003년에 기전문화재연구원서 발행한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금암향우회에서 2013년 발행한 사진집 『내고향 금암동』과 나이 드신 당시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증언을 종합해 정리해보면, 오산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하는 1950년 7월 5일 이전인 정황상 일명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추정되는 1950년 7월 2일의 금암마을 부락민 몰살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바로 3일 뒤 일어날 오산의 북한 인민군에 의한 점령지 추락 하 전조 상황을 예견, 아군인 국방군의 좌익계 주민의 집단학살로 나타난 것으로 봐진다. 이 모두 6 · 25한국전쟁의 비극적 단면을 나타낸다 하겠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상반된 정황과 구술이 공존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황과 내용의 실체 구명을 위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에게 진실한 역사 기록이라는 숙제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오산은 권율의 독산성전투(세마전투), 6·25의 오산(죽미령 · 갈곶리)전투에서 보듯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며 앞으로도 이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산시에서는 이곳에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도내 최초로 한국전쟁 기념관을 건설했다. 이 오산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착공에 들어갔고, 유엔군초전기념관으로 오산시 경기대로 742. 부지면적 14,062㎡, 건축연면적 935㎡로 3층으로 건축되어 2013년 4월 23일에 개관했다.



》 유엔군초전기념관(개관식).
2013년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시관에는 죽미령전투에서 사용했던 남북한 무기를 비교 전시하고, 죽미령전투에 참전한 스미스 부대원 540명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 전시했으며, 생존자 6명의 인터뷰도 영상으로 제작했다. 전시관 야외광장에도 6 · 25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미군의 곡사포와 소련제 기관총, 그리고 미군 전차와 북한군 장갑차가 전시돼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 제1권』, 2009.
- 烏山市, 『烏山市史 上, 下』, 1998.
- 정채호, 『우국한시집 하망 6 · 25 : 何忘 六 · 二五』, 2005.
- 유엔군초전기념관개관식 행사 책자, 2013.
- 금암향우회, 『내고향 금암동』, 우리동네사람들, 2013.
-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3.
- 세종대박물관 · 오산시,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5.



금암동산신제(錦岩洞山神祭)

| 경기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민규 |

지난 5월 11일 밤 세교신도시 고인돌공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독산성문화제의 행사중에 택지개발로 사라져버린 금암동의 전통제의였던 산신제가 재연된 것이다.

금암동은 11기의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도 마을 한가운데 고인돌이 있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이었다. 최소한 3,000년에서 최고 6,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지표유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3,000년~6,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니 금암동도 그만큼 오래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금암동의 산신제는 2003년까지 계속되다가 택지개발로 마을이 사라진 2004년부터 명맥이 끊겼다. 이렇게 명맥이 끊긴 산신제를 지난 제4회 독산성문화제를 개최하며 역사와 전통문화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산신제

산신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지는 산신제부터 작은 마을단위로 거행된 산신제까지 매우 다양하고 뿌리깊은 전통이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고 단군은 산신이 되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를 세운 단군왕검이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산신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라시대에는 삼신산(三神山)이라하여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숭배했고, 오악산(五嶽山)이라 불린 토함산, 계룡산, 태백산, 부악, 지리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큰 산에 국가적인 제의를 거행하며 나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부락제(部落祭)』에 의하면 전국 522개의 부락제 중 176개의 산신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500여 고을에서 산신제를 거행하고 있다고 한다.

오산에도 근래에 조성된 마을이 아닌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마을에서는 지금도 대부분 산제, 산제사, 당제사 등으로 불려지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1967년 마을에서 세운 당집
이곳에서 2003년까지 금암동 산신제를 지냈다. ©남경식



▸▸ 택지개발이 되면서 당집을 헐고 그 자리에 정자를 지었다.

산신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을신앙으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 풍요를 기원하는 제

의이다. 어느 마을이나 산신제는 신성한 제의로서 제사에 참례하는 사람이 아니면 산신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치러졌다. 지금도 산신제를 치르는 마을에서는 학술적인 목적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 녹음을 하려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산신제 재연의 의미

이번 독산성문화제에서 금암동산신제의 재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첫 번째, 아직까지 제사에 참례하는 마을사람들 외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산신제를 최초로 대중 앞에서 재연했다. 마을 사람들도 산제사를 치를 때 허락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산에 올라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두 번째, 산신제를 오랜시간 지내온 사람들이 산신제를 재연하므로서 전통적인 산신제를 복원했다. 조선시대 유교의 전통으로 인해 모든 제의가 유교식으로 변모하였으나 산신제는 좀더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제의 형식을 갖고 있어 제의연구에 좋은 사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산신제를 통해 금암동에 살던 원주민과 세교신도시에 이사 온 이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산신제 지내는 모습 ⓒ정영욱



금암동산신제

금암동산신제는 마을이 생긴 이래 2004년 마을이 해체되기 전까지 매년 이어져온,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겼던 행사이다.

금암동 사람들은 산신제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화합 발전을 기원했으며 더불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금암동에서는 산제사를 시월 초하룻날 자시에 지냈다. 원래 제일은 날을 봐서 산신 하강일로 잡았는데 이 날이 대개 시월 초하루가 되었다.

당산은 마을 뒷산인 도덕산이었으며 신격은 산신령이었다.

도덕산은 마을뒤에 있는 작은 산으로 도덕재, 도덕현이라고도 불렸으며 여계산의 한줄기이다. 산신제를 지낼 때 축관이 여계산쪽으로 내려가 '오소사, 오소사, 오소사'라며 신을 부르는 것을 보면 금암동의 산신은 여계산의 산신령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은 도덕산이라 불리는 마을의 뒷산에 있었다. 당집은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예전에는 나무기둥에 흙벽을 둘렀으며 이엉으로 된 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동네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열 집씩 돌아가면서 이엉 한 마름, 새끼 열 발씩 내놓아 초가로 지붕을 해마다 했었다. 매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마을에서 회의를 하고 1967년에 개량을 해서 시멘트 벽을 하고 기와를 덮었다고 한다. 당집의 정면 양쪽에는 시멘트로 마감한 후 시멘트가 아직 굳기 전에 글씨를 새겨 놓았다. 당의 정면 왼편에는 '錦岩青年會 謹呈'이라는 글씨와 당의 왼편에는 당을 개축할 날짜를 새겼다.

이 당집에서 마을이 없어지기 전인 2003년까지 산제사를 지냈으며 마을이 없어진 2004년부터는 산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당집마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정자가 세워졌다.

산신제는 신성한 마을 제사로 원래 당주, 제관, 축관과 제의를 돕는 심부름꾼만 참례할 수 있었으며 제사준비와 과정, 절차 등 모든 것이 매우 엄격했다.

산신제의 준비과정은 제일을 잡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제일을 잡으면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부녀자가 생리 등을 하는 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집 가운데서 생기복덕을 가려 당주, 제관, 축관을 선정했다.

당주와 제관과 축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매우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술 담배는 물론 비린 것을 먹어도 안되었으며 부부관계도 삼가야했다.

특히 당주는 산신제의 준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제일이 정해지고 당주로 선정되면 대문 양쪽에 황토를 놓아 부정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당우물에서 물을 떠다 매일 목욕재계했다.

제물로 올리는 소는 색이 고른 순수혈통의 황소를 올렸는데 우시장에서 사서 산신제 당일 마을에서 잡아 제물로 썼다.

산신제 순서

금암동산신제의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일 정하기

· 산신제를 지내기 1주일 전쯤 일진을 보고 정한다.
· 주로 음력 10월 1일(초하루)에 제사를 지냈다.
· 이 날이 부정한 날이면 전날 또는 다음 날로 바꿨다.
(부정한날 : 일진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날이거나 마을에 초상 등이 있을 때)

2. 당주, 제관, 축관 및 심부름꾼 3명 선정과 역할

· 당주 : 산신제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생기복덕이 좋아야하고 개인과 집안에 부정한 일이 없어야한다.
산신제 준비와 제가 끝난 후 분육 등을 당주집에서 한다.
당주는 산신제 2~3일전부터 당우물 주변과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물을 떠다가 집에서 목욕재계하였다. 조라(제주 祭酒)는 제일이 잡히면 그 다음날 당우물로 빚어 당집안에 있던 조라통에서 숙성시켜 제주로 썼다.
· 제관 : 당주와 같은 조건이어야 하며 제사를 주관한다.
· 축관 : 당주와 같은 조건이어야 하며 산신을 부르고 축문을 읽는다.
· 심부름꾼 : 제사에 필요한 일을 하고 제물을 운반한다.

3. 통문돌리기

통문은 마을 세대주의 이름이 연장자 순으로 쓰여진 큰 종이로, 사정에 따라 한몫 또는 반몫의 제수비용을 감당했다. 한몫, 반몫의



▶▶ 축관이 산신을 부르는 모습 ©정영욱

표시는 이름에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 표시했으며 이에 따라 제수비용을 추렴했다.

예전엔 보통 쌀 한말씩을 거뒀으며, 후에 돈으로 걷었다.

4. 시장 보기

당주는 함부로 밖으로 나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물은 주로 이장이 구입했다. 제물을 살 때는 가격을 깍지 않고 사는 것이 관례였다.

5. 제물로 올리는 소

제물로 쓰일 소는 수놈이어야 하고 제일 전날 사서 당주집에 메어놓고 먹였다. 제일 당일 마을 사람들이 당주집에서 오전에 밥을 먹고 마을 으쓱한 곳에서 소를 잡았다.

제상의 왼쪽부터 소머리를 놓고 갈비 한쪽 + 앞다리 한쪽 +시목고기 +뒷다리 한쪽을 올렸다. 이렇게 올릴 때 갈비나 다리처럼 양쪽이 있는 부분은 먼저 떼어낸 한쪽을 올렸다.

6. 산신제

(1) 자정에 제사를 지낸다.

(2) 당집안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 제상의 왼쪽부터 소머리 + 갈비 한쪽 + 앞다리 한쪽 +시목고기 + 뒷다리 한쪽을 올렸다.

· 작은 시루에 백설기 서되서홉 + 닭 암수 한 마리씩(생으로 털만 뽑아서) + 통북어 열 마리 + 대추한되 + 밤한되 + 감 열개 + 석어를 진설했다.

(3) 축관은 여계산 쪽으로 가서 "오소사! 오소사! 오소사!"라고 외치며 산신령을 부른다.

(4) 술을 한잔 올리고 제관이 부복하고 있으면 축관은 축문을 읽는다.

(5) 대동소지 – 제관이 축문을 태우며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축원한다.

(6) 소지 – 제관이 연장자 순으로 마을 세대주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를 태우며 개개인과 그 집안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한다.

(7) 음복 – 제사를 지낸 사람들은 당집에서 약간의 음복을 했고 제물은 당주집으로 옮겨서 마을사람들이 음복했다.

7. 분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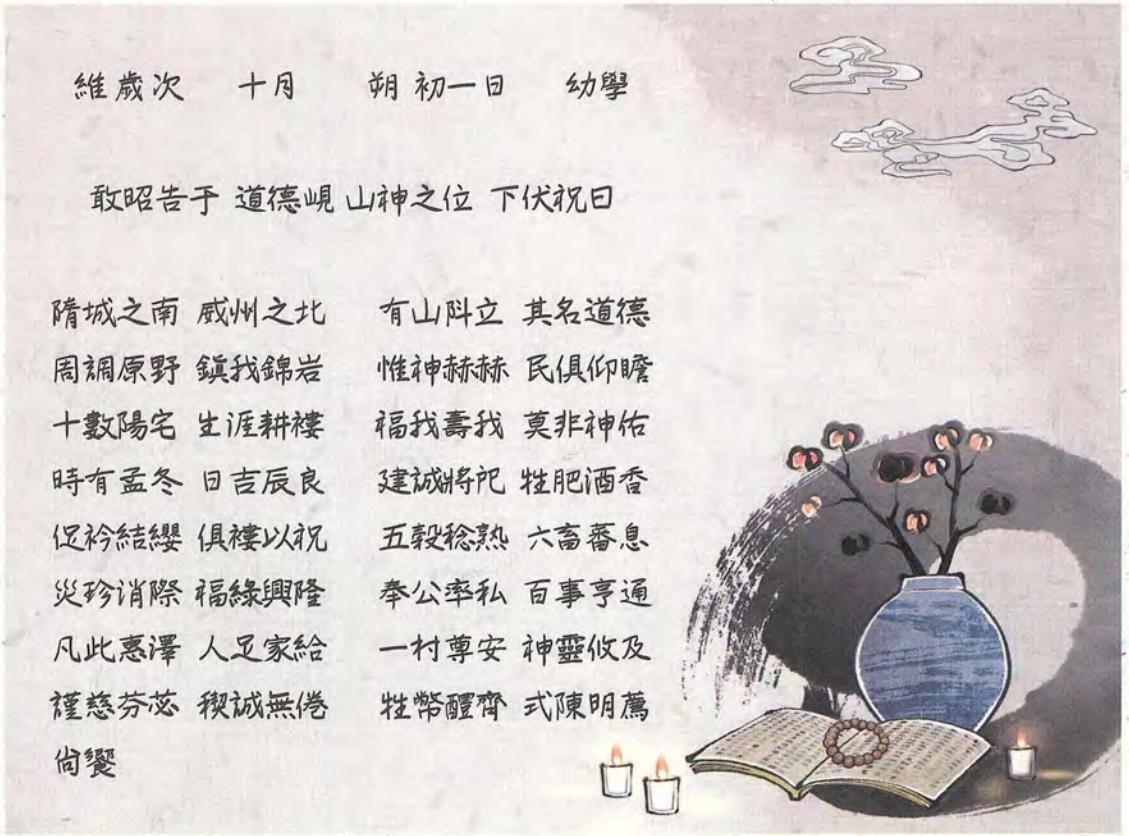
당주집에서 음복을 하고 분육을 했다. 고기를 사람수대로 똑같이 나눠준다. 그리고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과 제일을 잡은 분에게는 골고루 나누는 몫 외에 신장 1개씩을 더 주었으며

나머지 부산물은 마을사람들에게 판매했다.

산신제 축문

산신제의 축문은 마을 어르신들 중에 노한문(78세), 한현희(74세)님이 소장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산신제에 수회 참례했던 사람들로 예로부터 이어져온 축문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금암동산신제 축문



維歲次　十月　朔初一日　幼學

敢昭告于 道德峴 山神之位 下伏祝曰

隋城之南 威州之北　有山叫立 其名道德
周調原野 鎭我錦岩　惟神赫赫 民俱仰瞻
十數陽宅 生涯耕樓　福我壽我 莫非神佑
時有孟冬 日吉辰良　建誠將祀 牲肥酒香
促衿結纓 俱樓以祝　五穀稔熟 六畜蕃息
災珍消際 福緣興隆　奉公率私 百事亨通
凡此惠澤 人足家給　一村尊安 神靈攸及
謹慈芬苾 稧誠無倦　牲幣醴齊 式陳明薦
尙饗

축문의 내용은 수성(수원)과 위주(진위) 가운데 있는 살기 좋은 마을 금암동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도 잘되고 가축도 잘키워 복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덕현 산신께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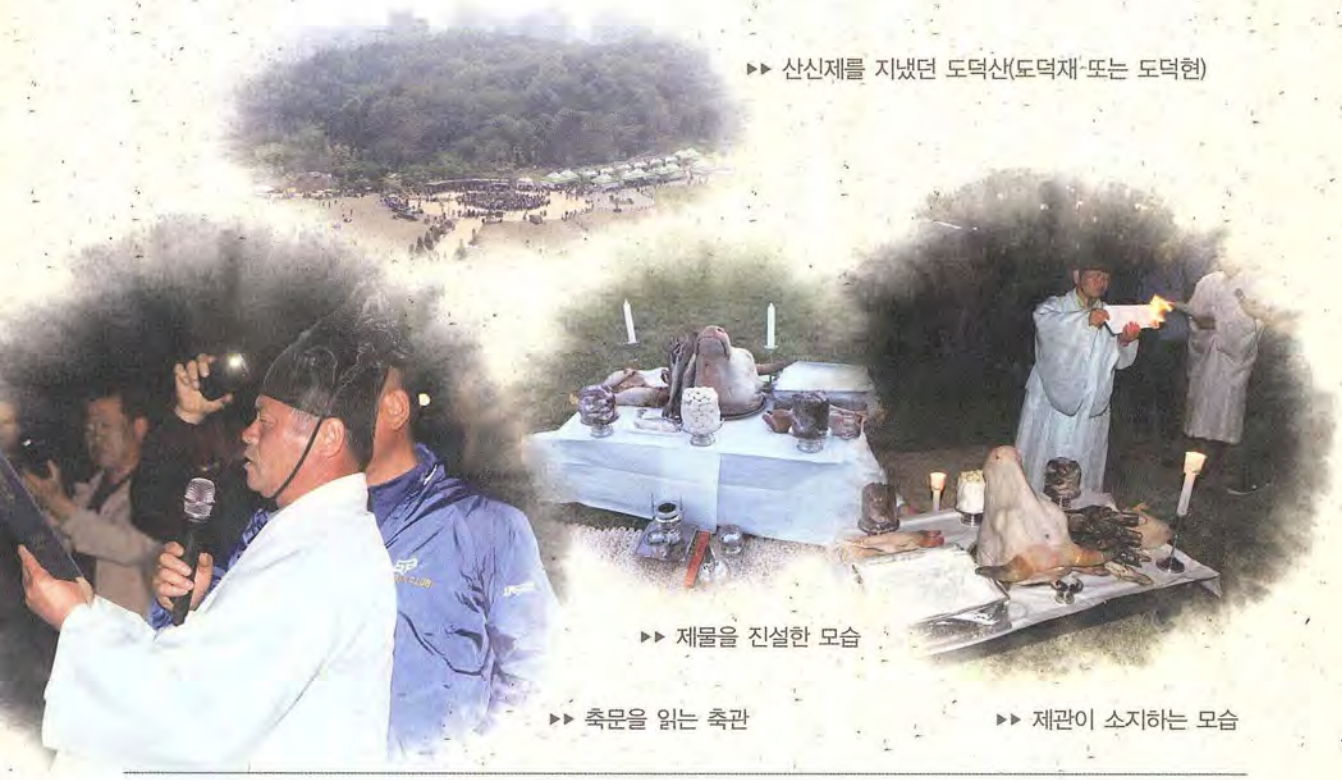
전통과 공동체 문화

오랜 세월동안 한번도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산신제를 재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공동체의식의 계승발전을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산신제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온 전통문화이다. 지금도 오래된 전통마을에서는 엄숙한 준비와 정성으로 치러지는 그 마을 최고의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산신제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며 공동체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공동체문화가 해체되는 현실속에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산신제를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로 재조명해 봐야한다. 그리고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이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금암동 마을이 없어지고 그 곳에 고인돌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옛 정취가 없어졌다. 수천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인돌처럼 원래 삶의 터전이 금암동이었던 원주민과 세교신도시에 새로 이사 온 이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인 교감이 이 산신제의 재연을 통해 작게나마 이뤄졌길 기대한다. 아울러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사는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했길 바란다.



▸▸ 산신제를 지냈던 도덕산(도덕재 또는 도덕현)

▸▸ 제물을 진설한 모습

▸▸ 축문을 읽는 축관

▸▸ 제관이 소지하는 모습

옥편

| 박장원 |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았다.

저녁 먹고서 어두컴컴한 길을 걸으면, 짙푸른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고 모내기 마친 논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쟁쟁하였다. 파란 철대문집. 선생님은 건넌방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누나들과 계셨고, 나는 안방에서 사모님과 마주앉아 공부하였다.

옥편 보는 법을 배웠다. 먼저 앞쪽 부수색인을 펼쳐 페이지를 확인하고서 책장을 넘겨서 그 부수를 찾아 나머지 획수를 헤아리면 거기에 보석이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중국문학을 전공하였다.

말이 전공이지 아는 것은 없고, 모르는 것만 더 많아졌다.

요새는 한자를 찾으려면 컴퓨터를 켠다. 옥편을 보려면 돋보기를 찾을 정도로 눈이 나빠졌지만, 어림짐작으로 부수를 확인하고 책장을 겨우겨우 넘기면 그곳에는 찾는 한자가 없다. 눈은 감감해지고 마음은 헛헛해진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다. 이제는 옥편을 거꾸로 본다. 한글로 된 자음색인이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한자 밑에 깨알같이 페이지가 적혀 있다. 헛고생은 하지 않는다.

'바를 정正'을 찾으려, 이 궁리 저 궁리 해본다.

'두 이二'의 세 획을 '장인 공工'의 두 획을 찾아도 없다. '그칠 지止'를 부수로 하여 한 획을 찾으면 될 것을, 뒤쪽에서 한글로 '정'을 찾아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더 가슴이 서린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엉뚱한 수고는 반복된다. 머리가 아프다.

보는 법이 따로 있나 보다.

수필을 소재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나 소설은 제재가 없어도 되는 장르인가.

제재의 지루한 나열은 진부하다. 이번 휴가에 유럽에 다녀왔다고 너도나도 뻔한 체험담을 장황하게 나열한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백년하청으로 물이 맑니 탁하니 하고 있으면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목적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과 철학적 사유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정수필正隨筆인 포멀에세이Formal Essay 같은 긴 수필이 있다. 혹자는 이런 에세이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역량을 지닌 수필가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아쉬워한다.

아무튼 요새는 짧은 수필을 선호한다.

소재에서 정련된 몇 개의 제재를 가지고 맵시 있는 수필을 쓸 수 있다. 그러기에 수필에서 소재를 찾는 법은 쉽지 않다. 그리고 제한된 제재를 가지고 한 편의 문학수필을 써야 하기에, 그 제재의 탐구는 남다른 실험정신에서 나와야 한다. 때문에 에세이는 '실험'이라는 어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을 제재로 글을 쓸 때 '달아달아 밝은 달아'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정正'은 '한 일一'과 발 모양을 본 뜬 '그칠 지止'가 만난 문자이다.

한 일과 그칠 지가 어울려, 발이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正'이다. 발이 한 곳에 멈춤을 나타내는 '그칠 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바를 정'을 옥편에서 찾아 낼 수 없다.



명경지수 明鏡止水.

장자莊子는 명경과 지수를 나란히 배열하였다. 밝은 거울과 잠잠한 물로,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칠 지'가 나에게는 아무래도 거북하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갈 지之'였으면 '밝은 거울 같은 물'이라고 하여 이해도 쉬울 터인데, 웬 '멈출 지止'인가 내심 불편하다. 그러나 명경지수에서 '지止'를 모르면, 볼 때마다 이해하기 어렵다.

일정하게 규격화된 체제는 필요 없고, 다만 커다란 그릇만이 유효하다.

수필의 본질은 무형식의 형식이다. 형식

에 준한 짜여진 문장에 수필을 담을 수 없으며, 내용에 따른 알맞은 형식을 새롭게 생산해야 한다. 정하여진 체제, 즉 형식은 없을지라도 커다란 체제, 즉 문체의 문학적인 품격(Literary grace)을 지녀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온다.

이런 일련의 독특한 제재를 염주 꿰듯이 교훈적이거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편의 에세이를 엮는다면, 정수필인 포멀에세이다. 대표적인 작가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그리고 비정수필非正隨筆 인포멀에세이Informal Essay는 붓 가는 대로 쓰듯 목적이 없다. 유명한 문학적인 에세이스트 찰스 램이다. 그러기에 19세기 영국문학사에서는 베이컨과 램을 산문가라는 영역에서 수필가로 독립시켰다.

아마도 포멀과 인포멀이 절묘하게 배합된 에세이가 나왔다면, 영국에세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터이다.

서정과 서사 그리고 설리가 어우러진 호방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수필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필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수필이 영롱한 구슬처럼 빛을 발하여야 한다.

옥편은, 주옥같은 글자를 꿰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소재는 삼라만상이다.

먼저 삼라만상에서 나만의 제재를 끌어당겨 가슴에 품어야 한다.

소재에서 제재를 알아보는 법은 마치 옥편에서 정자正字를 찾는 것과 같은 노정이다.



| 박장원 |

- 경기 오산 출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원에서 중국문학 공부
- 수필가,
- 문학평론가
- 수필집 『양수리』 · 『말하는 잎새』
- 평론집 『현대한국수필론』 · 『우물마루』



강원도 춘천

| 오산문화원 행정실장 추 은 실 |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오산문화원.

오산문화원의 행사 중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 씩 오산을 떠나 외부 문화를 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문화탐방을 매년 실시한다. 작년 2012년에는 부안과 진주를 다녀왔다.

매번 문화탐방을 기획하고 추진 실행하는 문화원의 직원들은 늘 분주하다. 장소 선정과 당일 먹고 마시는 먹거리 준비와 탐방 장소와 매 때 식사를 위한 식당 섭외, 장소 답사 등으로 말이다.

금번 문화탐방 장소로 춘천을 선정했다. 우

리에게 호반과 물안개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강원도 도청소재지이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남성의 삼분의 이는 강원도를 잘 알고 있다. 군대생활을 이곳에서 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산과 계곡과 강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찾는 곳이기도 하여 이래저래 온 국민이 친근하게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또 강원도 도민들은 보편적으로 심성이 맑고 순수하다. 아마도 맑은 강과 높고 깊은 산과 계곡이 심성을 차분하고 사려 깊게 만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강원도 중에도 중심 도시인 춘천을 다녀오기 위해 오전 9시에 오산문화원에 모인 오산문화가족들은 5월 하순의 따가운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들뜬 얼굴로 버스에 올라 출발했다.

오산시 오산동 경기대로를 빠져나가 오산경부고속나들목에 올랐다.

상행 노선을 밟은 관광버스는 시원스레 달렸다.

주변 동탄1신도시의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이 몇 년 사이에 누런 벼농사 지역에서 도심으로 바뀌었고, 반대편 동탄2지역신도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탄 동부지역은 파헤쳐진 산과 들판이 어수선하다. 개발이 되더라도 살기 좋고 친 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났으면 한다.

이윽고 임명재 오산문화원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문화탐방 진주 유등축제의 추억을 간직하며 이번 문화탐방도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기원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다. 이윽고 유종대 오산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일정소개, 또 회원 각자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였다.

5월은 아까시나무의 상큼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계절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기인데, 오산은 아까시나무도 많았던 고장이기도 했다. 이즈음이면 전국 어디서나 활짝 피어 하이얗게 익어가는 계절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짙푸른 녹음, 오똑한 산세, 깊은 계곡, 이렇게 미끄러지듯 강원도의 산야에 함몰되어갔다. 가평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우리 일행은 첫 탐방지인 김유정문학촌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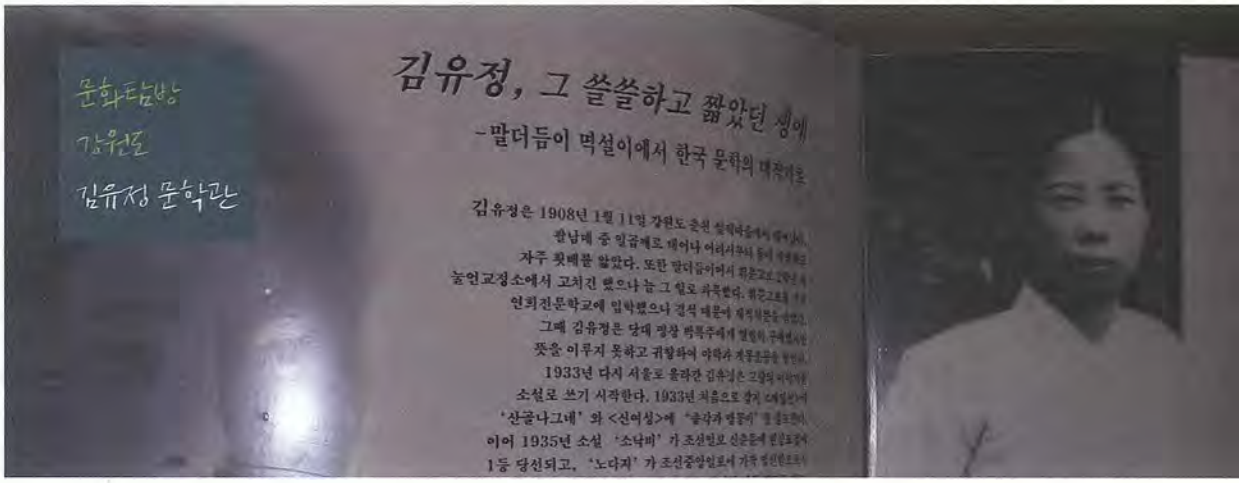
30년대 한국 단편소설의 해학과 눈물과 슬픔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소설가이다. 춘천시 신동면 실레마을에서 김춘식과 청송 심씨의 2남 6년 중 차남(일곱째)으로 태어났다. 유아기에 서울 종로로 이사한 뒤 일곱 살에 어머니를, 아홉 살에 아버지를 여읜 뒤 서울 재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휘문고보(현 휘문중고)에 입학하여 1929년에 졸업하고, 1930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했으나 당대 명창 박녹주를 열렬히 구애하느라 학교 결석이 잦아 두 달 만에 학교에서 제적당했다한다. 이렇게 실연을 당하고 학교까지 제적당하자 귀향하여 실레마을에 금병의숙을 지어 야

학 등 농촌계몽활동을 약 2년간 벌이는 가운데 1930년대의 궁핍한 농촌 현실을 체험한다. 1933년 다시 서울로 올라온 김유정은 농촌과 도시의 밑바닥 인생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옮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소설들이 우리 문학사의 화려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작품에 중·고등 교과서에서 배우기도 했던 「소낙비」 「노다지」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따라지」 「만무방」 등 많은 작품이 있다.

김유정의 문학촌은 잘 꾸며져 있었다. 생가가 복원 되었고, 뜰에는 생강나무, 양지꽃, 제비꽃, 할미꽃, 붓꽃, 꿀풀꽃, 금낭화, 매발톱, 흰초롱꽃, 보랏빛초롱꽃, 노란기린초, 나리꽃, 원추리꽃 등이 계절별로 피며, 벌개미취, 산국, 감국, 개미취, 구절초 등이 함께 한다고 한다. 김유정기념관에 들어가면 김유정의 작품집과 작품에 대한 설명, 김유정에 관한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또 김유정역이라는 기차역이 있었고, 김유정문학촌은 이곳 김유정역과 붙여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





역 이름이 김유정이라는 문학가의 이름을 사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춘천시민들의 발상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바로 출발하여 점심을 춘천닭갈비로 하기로 하고 식당을 찾았다. 명동 쪽은 대인원이 먹기가 불편하다 하여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쪽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저녁은 막국수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춘천을 방문한 목적이기도 한 마임축제 장소로 이동했다.

마임이란 연극, 연기의 한 형식으로 원래는 촌극 등 잡극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무언극'을 의미한다. 이런 마임에서 착안하여 '몸'의 원초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하여 몸을 부각시키는 축제이다. 춘천마임축제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사회적으론 적극적인 간섭의 태도를 취하고 동시에 행동하는 개인의 몸을 '예술'과 '난장'으로 드러내는 현장성을 중시 한다고 한다. 예술의 자유와 해방과 일탈을 꿈꾸는 현장이다. 금년으로 25회를 맞이한다.

도깨비난장이 펼쳐지는 곳은 MBC 주차장,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와 주변무대, 분수 광장, 강변무대, 해방동네, 수변공원, 강원체육회관, 도심 등이며 5월 19일에서 26일까지 열린다.

주 키 포인트는 '춘천마임축제는 난장이다, 라는 타이틀이다.

우리는 저녁에는 귀가해야했으므로 모든 춘천의 마임축제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다.

아쉬운 점은 이날 날씨가 너무나 더웠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그늘을 찾게 되고, 뭔가 행사 진행이 어수선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축제가 25년째 열렸다는 것이 대단함을 준다.

자유와 해방과 일탈이 주 의도이니 어수선함

도 자유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몸씻김굿, 춘천시내 곳곳을 유랑하며 도시를 탐구하고 몸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움직이는 몸. 일탈과 금기에 주목하고 속박된 몸의 자유의지를 드러내는 몸의 해방 난장. 이것이 바로 춘천마임축제일 것이다.

우리 일행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춘천 외곽 동면, 막국수 식당가에서 막국수를 저녁으로 먹고 귀로에 올랐다.



▸▸ 춘천마임축제



▸▸ 춘천마임축제



오산운암예술단

| 인터뷰 · 글 시인 배 명 숙 |



오산의 예술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용계는 많은 단체가 함께하며 다양한 장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호는 구명자단장이 이끄는 운암예술단을 찾아보고자 구단장을 만났다.

구명자 단장은 한국무용 살풀이 이수자이다. 그녀는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애교가 있으면서도 성격이 서글서글하다. 구단장을 만나러간 필자에게,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찾아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온다. 현재 어린아이들을 모집하여 어린이 무용단을 창립했다 한다. 한국무용을 배우고 그 무용을 무료로 단원들에게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춤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창설한 것이 오산운암어린이예술단이다. 부단장에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출신의 김민아 강사가 맡아서 수준 높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오산시민들의 관심이 많아 이미 정원이 꽉 찼단다.

오산 무용예술의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오산운암어린이예술단의 문화학교 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심 사업이 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오산운암어린이예술단은 오산시 초등 전 학교 70여명의 지원자 중에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명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으로 20명 대부분은 1, 2학년 위주로 뽑았다.

4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연습이 시작되며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문화예술회관 지하 2층 연습실을 이용한다고 한다. 한국무용 기준으로 진행되며 발리댄스와 발레도 함께 배운다고 한다.

구명자 운암예술단 단장은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오산에 오게 되었다. 지역에 정을 붙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인 운암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들의 재능도 살리 구단장이 보여주는 공연은 국제적이다. 그녀의 좌우명은 '배워서 남 주자' 이다. 봉사하는 마음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무용을 통한 그녀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춤은 특별한 교육 없이도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하나' 라고 생각한 20세기 춤의 혁명가 피나 바우쉬의 말처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우리 안의 뜨거운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하여 나만의 예술정신을 자유롭게 얘기하듯이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진다.

흔히들 '교육' 하면 학교와 아이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가간다. 문화는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이다. 눈빛으로 몸짓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문화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구명자 단장



▸▸ 오산운암예술단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
"오랜 인생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소리"

| 인터뷰 · 글 시인 배 명 숙 |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은 2012년 2월 23일 '오산실버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55세 이상의 남, 녀 50명으로 오산문화원의 도움과 성원하에 창단하였다.

창립 당시 설립자이며 지휘자인 윤병용 선생을 제1대 지휘자로 선임하고 오산시 각 단체들과 협연하였는데, '시민초청발표회(오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를 시작으로 기량을 쌓아가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옥같은 레파토리와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곡들을 선정해 오산시민들에게 음악적 향연을 통한 행복과 감동을 전하고자 세대적 나이를 넘어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감동의 울림과 하모니로 성악가로 활동 중인 제2대 김승환 지휘자와 함께 보다 더 학구적이고, 체계적인 섬세한 합창연주를 위해 연습중이다.

더불어 오산시의 실버세대를 이끌고, 시민을 향한 많은 참신한 기획연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오산시' 를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강규자 단장님 외 42명으로 구성된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연습시간은 주중 2회 화요일,



•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목요일 각각 오후1시~3시30분 까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퇴직 후 노후설계의 영역인 소득, 육체적 건강, 돌봄(Care) 및 안전(Security), 사회참여와 관련된 기회들이 적정하게 제공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을 'Active Ageing'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활동(social activity) 또는 사회참여 활동에는 여가 및 레저 활동, 사회봉사、공헌 활동, 경제 활동이 있고 그 안에는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될 수 있다. 시니어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 모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환경, 문화,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문화향유자로 지속가능한 단체를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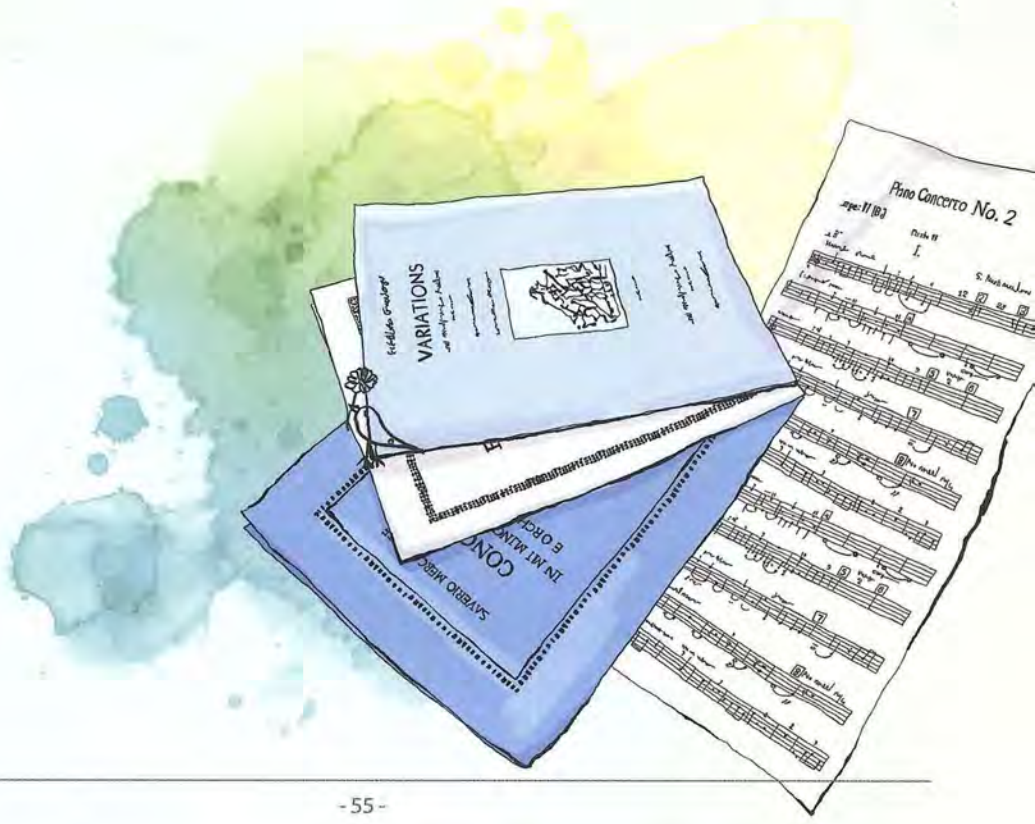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문화'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색을 띄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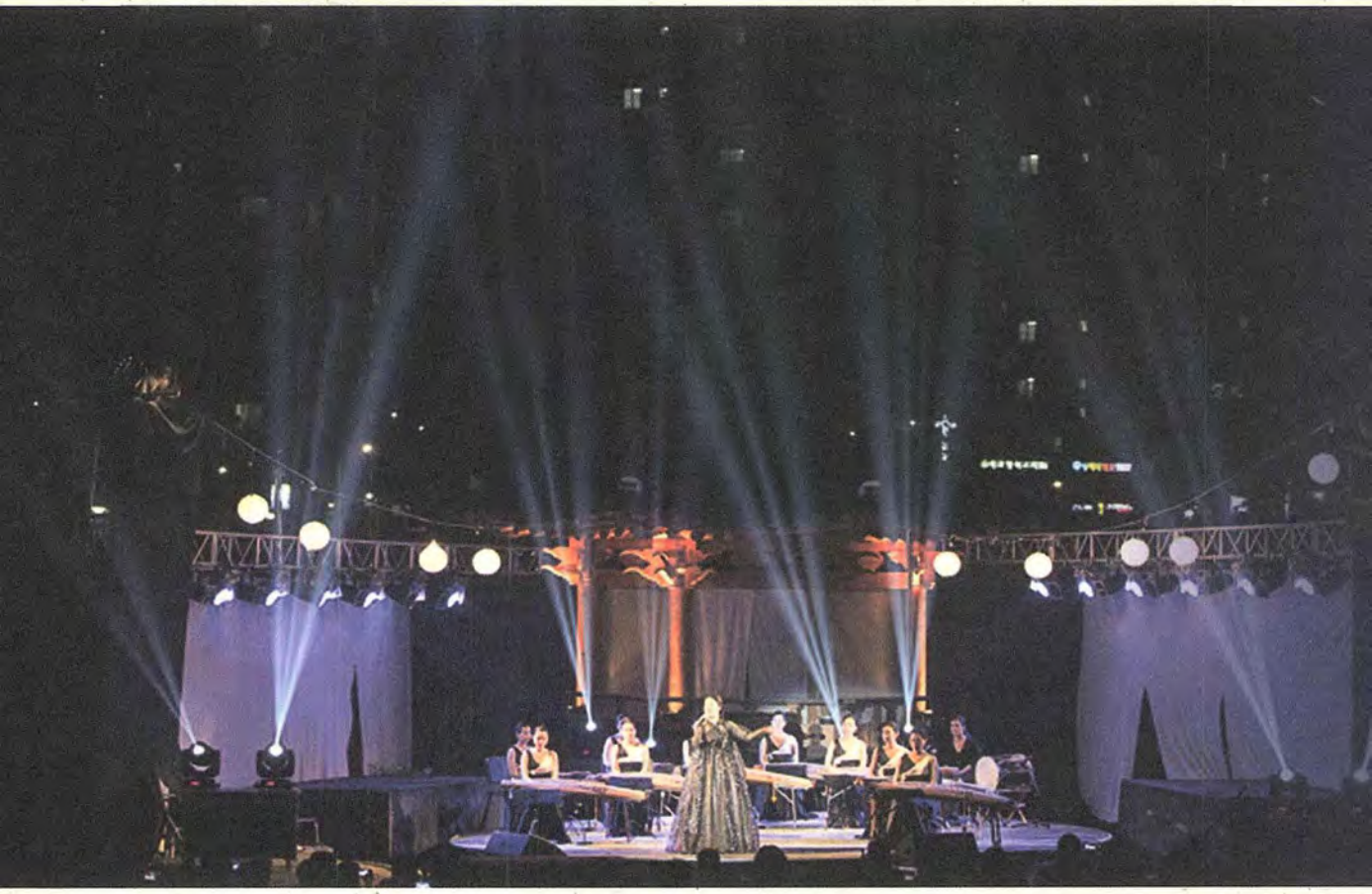
를 펼치고 있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세태 속에 지역문화의 과제로 단순한 지역행사에서 벗어난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는 삶이고 대중의 일상이며 현재와 현재를 기반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무엇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이전의 문화예술과 우리시대의 문화예술이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대중문화예술'이 꽃 필 때가 된 것이다.

강규자 단장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점들이 있지만 차차 보완하여 지금처럼의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였다. 누구보다도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다.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은 2012년 제1회 정기연주회 외 경기도문화원 실버문화축제를 비롯하여 건강가족지원센타 찬조 공연, 오사모 불우이웃돕기 공연, 노인대학 수료식 찬조 공연, 2013년 제4회 독산성문화제, 2013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다수 참여를 하였다. 올 해도 제2회 정기연주회 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등이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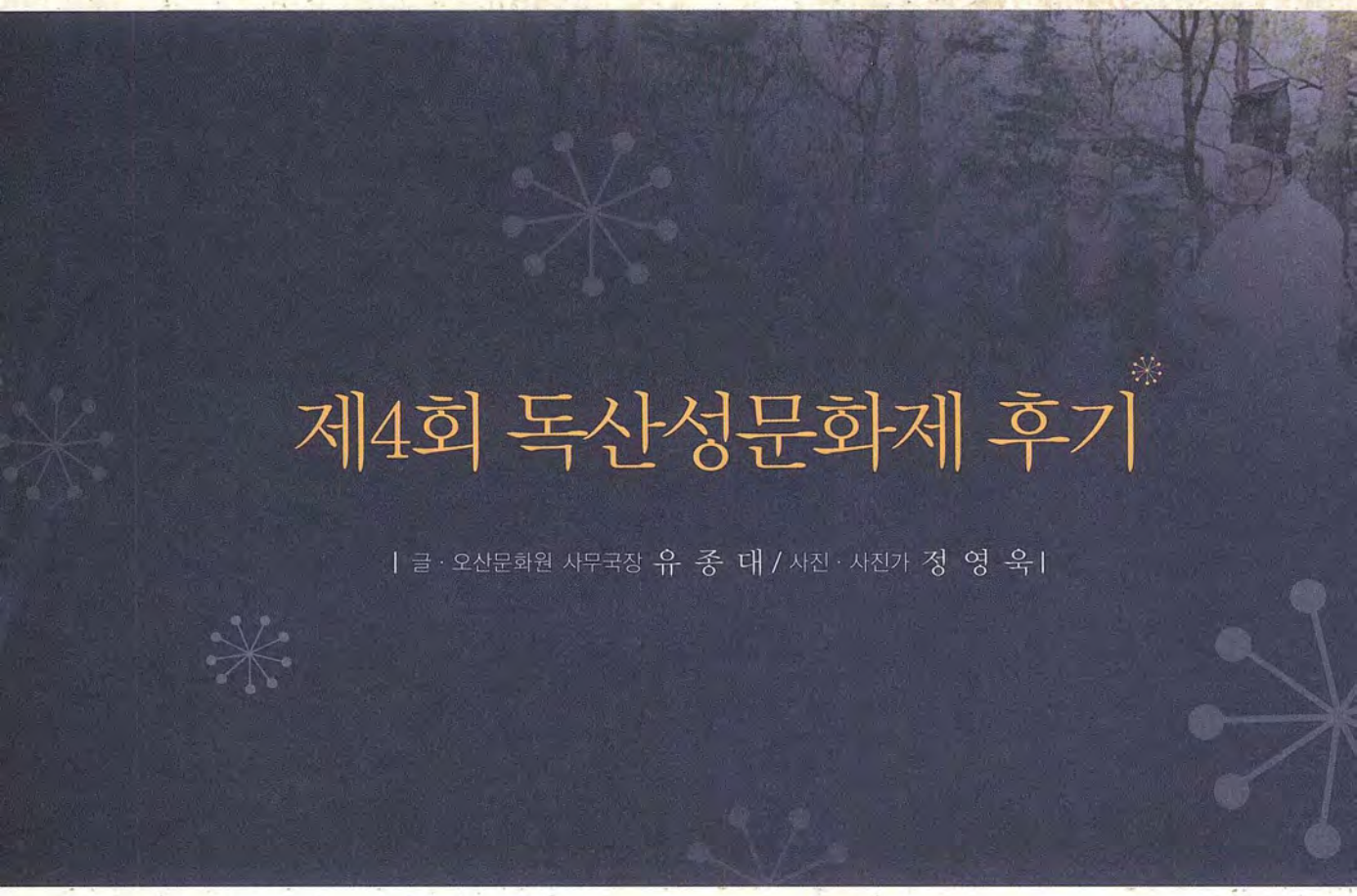
금년으로 제4회를 맞이하는 2013년 제4회독산성문화제는 제1, 2, 3회를 이어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축제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기존에 열렸던 장소인 독산성과 오산시청 무대를 탈피하여, 이번 축제부터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있는 세교지구 고인돌공원에서 일부 공연과 재현을 제외하곤 모두 이 곳 고인돌공원에서 치러졌다.

기존의 독산성의 무대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세교지구는 금암동이라는 원주민이 도시개발로 인해 소개되어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되었고, 새로 입주하여 새 주민이 된 세교지구 시민들과의 단절을 연결해보고자 하는 입장도 반영된 축제이다.

앞으로도 오산의 전 지역이 오산을 대표하는 축제인 독산성문화제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축제였으며 무한한 에너지를 간직한 축제였다.

아직 4회 밖엔 되지 않은 짧은 연륜을 간직하고 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큰 성과를 내는 축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번 제4회 독산성문화제는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원장 임명재)과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의 공동 주관



제4회 독산성문화제 후기

| 글 ·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유 종 대 / 사진 · 사진가 정 영 욱 |

으로 치러졌는데, 비교적 성공한 축제로 평가 받는다.

3만 명이상이 관람한 이번 축제는 1, 2, 3회 독산성문화제의 주제인 〈독산성세마대지에서 지혜를 만나다〉에 〈과거와 현재의 공감과 소통〉을 부제로 선정하여 외연 확장과 오산시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단합을 꾀한 축제였다.

권율장군의 애국심과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이 오롯이 녹아 있는 사적 독산성세마대지와 최소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는 경기도 기념물인 금암동 고인돌군이 소재하는 고인돌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오산의 역사에 대해 오산시민의 높은 자긍심과 주민화합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장이 된 축제였다.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3일에 걸친 이번 행사는 세교동아파트연합회, 금암향우회, 오산자원봉사센터, 오산새마을부녀회, 화성동부경찰서 등이 후원했다.

이번 제4회독산성문화제는 교육을 주제로 공자에게서 답을 찾아보는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고, 고인돌공원에서 권율탐방로를 걸으며 오산의 역사 및 문화를 배우며 함께

하는 트레킹을 독산성에서 제4회독산성문화제의 성공을 비는 고유제에 연결되는 두 행사를 연결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제4회독산성문화제의 성격과 특질을 특징지으며 둘째 날을 이어갔다. 특히 독산신명에게 고유하는 제는 정조실록에 근거하여 재현하는 과정을 가졌다. 초헌관에 곽상욱 오산시장, 아헌관에 임명재 오산문화원장, 종헌관에 윤한섭 전 오산시의회의장, 집례에 최원빈 성균관유도회오산지부회장, 대축에 강창일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가 맡았다.



▸▸ 세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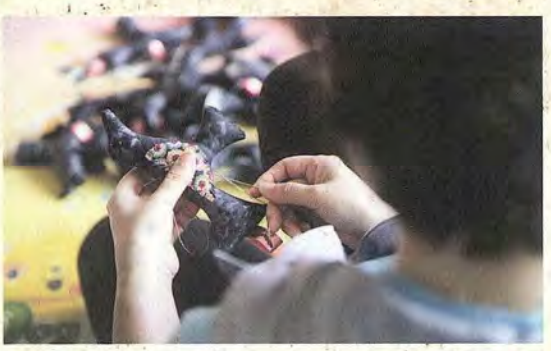
세마식과 권율퍼포먼스에 이어 고인돌 후계목심기 행사를 가졌는데, 이 행사는 금암동의 할머니바위 곁 할아버지바위 옆에서 자라던 300여년 된 은행나무가 세교택지개발 때에 베어져 없어졌던 것을 이 나무에서 얻어 보존했던 7년 된 후계목을 심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영목을 되살리는 행사를 복원함으로서 금암동 주민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 복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행사도 가졌다. 또 금암동 산신제를 재현함으로서 단절된 전통과 신 이주민과 원주민인 실향 금암주민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는 행사도 가졌다.

부제가 "까마귀 날다"인 열두 띠 풍류난장을 오산의 이야기와 열두 띠 동물이 어우러지는 현장 공동 거리극 공연도 있었으며, 금번 독산성문화제에선 오산의 상징인 까마귀가 부각되는 "고인돌은 살어있다"는 공연이 '극단 벼랑 끝 날다'에 의해 초연 되었다. 오산의 역사와 신화, 전설에 얽힌 오산의 모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주제 공연으로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 실행하였다.

이번 문화제엔 줄타기공연, 마당극, 음악극 등이 기획 공연 되었고, 독산성콘서트에서는 기존 연예인 위주의 쇼 프로그램을 오산에서 활동하는 자생 공연 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변화를 주었다.

전통무예24기와 마상무예공연이 선보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연속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외에도 태권도 공연이 있었으며, 오산거주 사할린동포의 공연, 포크 송공연, 색소폰 공연, 운암예술단공연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대미의 마지막 공연은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폐막 공연으로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다.

1, 2, 3회와 마찬가지로 체험놀이 프로그램이 치루어졌는데, 이 체험 프로그램은 오산의 학부모스터디 체험팀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년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금년에는 선사 체험놀이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 까마귀 "烏" 만들기

전시 프로그램으로서는 독산성문화제 기념 캐릭터 까마귀 "烏" 만들기 퀼트아트로 까마귀를 형상화한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오산의 상징성을 새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전, 움집만들기, 향토사진전으로서 금암동과 고인돌공원의 마을 풍경 등을 사진으로 전시 하였다. 독산성에는 깃발전이 오산 서예인들의 작품으로 게양되었다.

또 중앙전통시장의 먹거리를 이곳으로 가져와 먹거리 장터를 열었는데, 관람객들은 늘 접했던 음식이라 친근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관람객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인돌공원의 인근 상가 음식업 상인들은 매출에 악 영향을 받았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내년 문화제에선 한번쯤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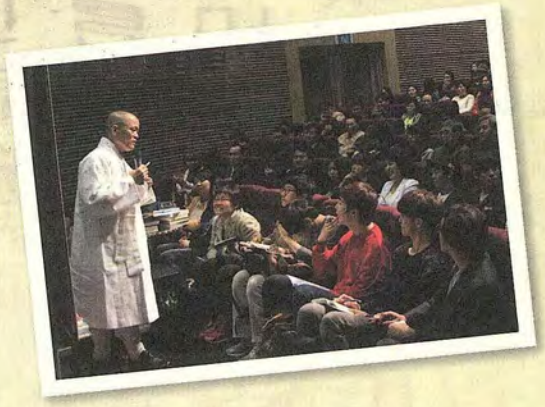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무난한 축제로 평가 받았으나, 독산성문화제라고 하니 꼭 독산성에서주로 열려야 한다는 의견과 독산성축제는 오산을 대표하는 오산의 축제라는 그래서 독산성 이외의 곳에서도 독산성의 정신과 상징성만 살린다면 가능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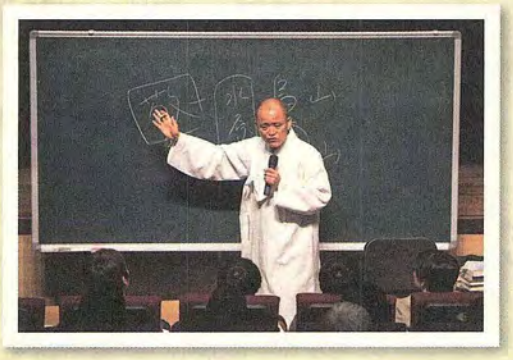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오산의 정체성을 살리며, 오산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는 축제여야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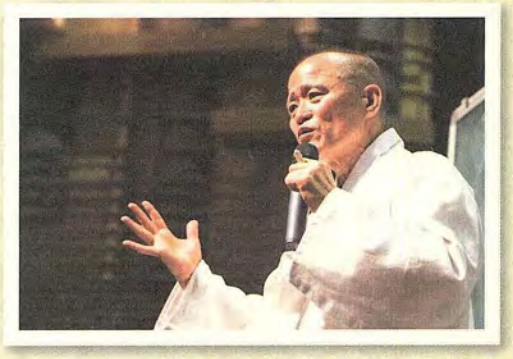
독산성문화제를 치루면서 개선될 점, 계승되어야 될 사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독산성문화제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과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실 있는 오산만의 독특함을 간직하며 치러지는 멋진 축제로 남기를 바란다.



제4회 독산성문화제 첫째날







▸▸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 모습





▸▸ 교육, 공자에게 길을 묻다 강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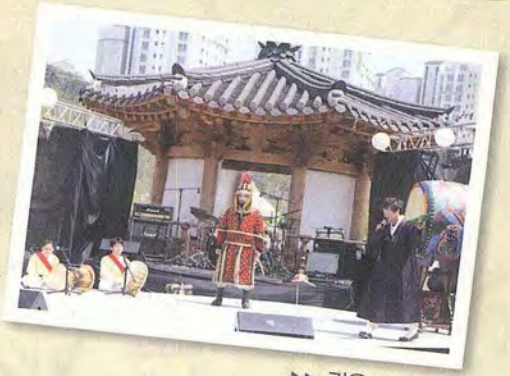
제14회 독산성문화제 둘째날



▸▸ 독산성 트래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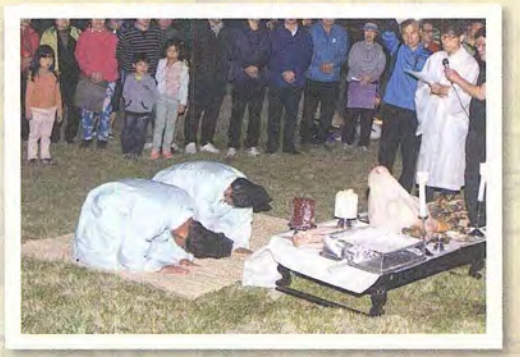
▸▸ 고유제



▸▸ 권율 퍼포먼스



▸▸ 오산판줄-김대균 명인



▸▸ 금암동 산신제

제4회 독산성문화제 셋째날



▸▸ 마상무예



▸▸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공연



▸▸ 고인돌은 살어있다 〈주제공연〉



▸▸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



▸▸ 오정해&숙명가야금연주단 〈폐막공연〉

제14회 독산성문화제 일정

▸▸ 첫째 날인 5월 10일 : 독산성 학술토론회,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구 분	시 간	주 제
1부	14:00 ~ 16:00	·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특강(주제-우리의 삶속에 있는 임진왜란과 오산)
2부	16:15 ~ 18:45	· 주제별 학술토론회(주제-교육, 공자에게 길을 묻다.)

▸▸ 둘째 날인 5월 11일, 장소 : 고인돌공원과 독산성세마대지

시 간	주 제	시 간	주 제
08:10 ~ 10:30	· 오산색소폰공연 / 무대2	15:00 ~ 16:00	· 퀴즈왕선발대회 '대북을 울려라' / 광장
10:30 ~ 12:00	· 운암예술단 국악 공연 / 무대1	15:30 ~ 17:30	· 독산성콘서트 1부-봄의 소리, 2부-코바나 / 무대1
13:00 ~ 13:10	· 마당극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 무대2	18:00 ~ 19:00	· 김대균의 '오산 판줄' / 광장
13:10 ~ 13:30	· 오산팝스오케스트라 공연 / 무대1	19:30 ~ 20:30	· 주제 공연 〈고인돌은 살어있다〉 / 무대1
14:00 ~ 15:10	· 사할린 동포 공연 / 무대2	20:30 ~ 21:40	· 산신제 / 광장

▸▸ 셋째 날인 5월 12일, 장소 : 고인돌공원과 문시중학교

시 간	주 제	시 간	주 제
11:00 ~ 11:30	· 오산색소폰공연 / 무대2	16:00 ~ 16:30	· 태권도 공연 / 무대3(문시중학교)
13:00 ~ 13:30	· 운암예술단 국악 공연 / 무대1	16:30 ~ 17:30	· 무예24기 · 마상무예 / 무대3(문시중학교)
13:00 ~ 14:00	· 마당극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 무대2	16:30 ~ 17:30	· 콘서트 〈Whale of a time〉 / 무대1
14:00 ~ 14:30	· 오산팝스오케스트라 공연 / 무대1	18:00 ~ 19:00	· 마당극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 무대2
14:40 ~ 15:10	· 사할린 동포 공연 / 무대2	19:30 ~ 20:30	· 주제 공연 〈고인돌은 살어있다〉 / 무대1
15:00 ~ 16:10	· 거리극 〈열두띠 풍류난장〉 / 무대1	20:40 ~ 21:40	· 오정해와 숙명가야금연주단 공연 / 무대1
15:30 ~ 16:30	· 포크송 공연 / 무대2		

▸▸ *체험놀이 23개소(무료 진행:13개, 유료진행:8개)

무료진행	
· 선사체험놀이터 / 고인돌공원	· 숙명가야금연주단 / 고인돌공원
· 테이블 티슈 공예 / 고인돌공원	·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 고인돌공원
· 인절미만들기 / 고인돌공원	· 전통제기만들기 / 고인돌공원
· 권율 · 정조체험 / 고인돌공원	· 인의예지체험 / 고인돌공원
· 곤충만들기 / 고인돌공원	· 버블드레곤 / 고인돌공원
· 탁본체험 / 고인돌공원	· 다도체험 / 고인돌공원
· 서예체험 / 고인돌공원	
유료진행	
· 풀짚공예박물관 / 고인돌공원	· 탈 만들기 / 고인돌공원
· 장승만들기 / 고인돌공원	· 나무공작만들기 / 고인돌공원
· 활 만들기 / 고인돌공원	· 막사발 체험 / 고인돌공원
· 조랑말 체험 / 고인돌공원	· 머그컵 · 가면 · 우산그림 그리기 / 고인돌공원



2013년 오산시 정월 대보름 큰잔치

| 축제 총괄, 오산문화원 사무국장 유 종 대 |

'2013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가 2013년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암들판 웨딩의 전당 뒤편에서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민족고유 명절인 대보름을 맞이하여 20만 오산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원장 임명재)이 주관한 이 행사는 작년의 2만 명이 운집한 행사가 금년에는 3만 명의 축제로 호응이 좋았으며, 축제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날 1부 행사에선 각 동 척사대회를 이 곳 운암들판 행사장에서 갖게 해 시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유도했던 축제였다. 윷놀이는 물론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민속체험과 풍물놀이, 줄타기공연, 마술, 연극, 무용,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하루를 문화와 예술과 민속놀이가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이끌었다.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먹고 푸짐하게 만족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 먹거리와 놀이가 어우러지는 대보름 명절의 특성을 잘 살렸다.

2부에선 액운을 날려버리도록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전 오산시민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화합의 척사대회를 종일 이어지게 하였다.

오산시민들에게 뻥튀기, 엿치기, 떡메치기,

부럼(호두, 땅콩), 인절미, 솜사탕, 붕어빵, 군밤, 군고구마, 달고나 등 추억의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루 종일 제공하였고, 척사대회가 열리는 자리엔 새마을부녀회가 6개동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오산중앙전통시장상인회가 운영한 먹거리부스에선 육개장, 국밥, 칼국수, 파전, 족발, 두부김치, 도토리묵, 동동주, 막걸리 등 싸고 푸짐한 먹거리를 오산시민에게 제공하였다.

이날 '2013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위해 일부 지역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부분 통제되었으며 행사장 근처인 시청 앞 교차로에서부터 부산동 고속도로 밑 지하차도에 이르는 구간이 2013년 2월 22일 밤 12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교통이 통제되었다. 오산역에서 시청 앞 교차로 구간까지 지신밟기 거리행진으로 인해 2013년 2월 24일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부분 통제되기도 하였다.

'2013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과와 오산문화원 관계자 등은 축제 준비 초기 우려로 이슈화 되었던 달집태우기 기네스북 도전, 2012년 행사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합리적 만장기 제작 등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예산에 맞지 않는 구상은 바로 시정하여 수정 하였다.

'2013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치루고 시민들의 만족한 평가를 얻어낸 점은 이 번 행사의 성공을 얻어낸 것이라 사료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행사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2013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 일정

구 분			시 간	진 행 계 획	참 여
1 부 행사	척사대회		10:00~17:00	- 각 동 자체 척사대회 운영	6 개동
	윷놀이		15:00~17:00	- 동별 2인1조 2팀(4명),1~3위 시상	6 개동
	민속음식 체험		13:00~17:00	- 복떡(인절미), 떡메치기(2개소) - 부럼(호두, 땅콩), 엿 치기, 뻥튀기 - 군밤, 군고구마, 가래떡, 달고나	자유총연맹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운영		13:00~21:00	- 식사류: 국밥,육개장,국수 - 기 타: 족발,오뎅,순대,호떡,튀김, 군고구마, 떡복이,번데기,빈대떡, 가래떡,두부김치,도토리묵등)	전통시장
	민속놀이 체험마당		13:00~17:00	- 연 만들기, 팽이치기 -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굴렁쇠, 소원문 쓰기, 새끼꼬기 - 만들기(계란꾸러미,뱀,장승,복주머니)	자원봉사센터 의제21 실천 전래놀이팀
	지신밟기 거리행진		16:10~16:50	- 풍물놀이 3팀, 시민등 100여명 - 오산역→구)대원동주민센터→중앙동주민센터 →서울병원→ 행사장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공연 마당	상설 무대	12:30~13:00 13:00~13:40 13:50~15:40 15:40~16:10 16:10~17:00	- 사물 놀이 - 각양각색 우리소리 - 청아 청아 내딸청아 - 줄 타기 공연 - 북한 민속무용 · 노래	예술단 오산 국악오산지부 우금치 남사당보존회 평양통일예술단
		간이 무대	14:00~14:50 15:00~15:50 16:00~16:30	- 매직 마불링 쇼(마불링, 드로잉쇼 등) - 찰리 아저씨의 마술공장 - 널뛰기 공연	매직 유 극단 찰리 국 풍
2 부 행사	기념식		17:00~17:20	- 내빈소개 - 인사말씀(문화원장) - 축사(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 기원문 낭독	사회자 문화원장 시장 외 예총회장
	식후공연		17:20~18:10	-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우금치
	달집태우기		18:10~18:30	- 달집점화(무사안일기원 지신밟기)	다함께
	깡통돌리기		18:30~21:00	- 시민 자율참여(운암들)	시 민

논어에서 배움을 생각하다

| 노 은 영 |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구절을 언제부터 기억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공부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낙인처럼 나에게 박혀 있던 글귀였다. 논어의 첫 문장이라는 이 구절은 학습의 중요성, 학문의 즐거움을 말한다고 이야기들 한다. 배움에서 즐거움이라…….



• 논어집주 학이편

어린 시절 난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고,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말하자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던 것이었다. 아마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배움이기보다는 입시라는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른들이 닦아놓은 길을 쫓기듯 나아가기 바쁘다. 그 속에서 생각이라든지 실천이라는 것은 타인의 이야기가 되고 그저 암기와 이해라는 뇌의 화학반응만이 존재한다. 왜 이렇게 되어 버

렸을까? 정말 공자님께서 계셨던 2500여 년 전 배움의 자세와 지금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 논어는 내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았다. 실천과 반성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 덩어리를 외우거나 메뉴얼화하는 것이 학습이 된 지금, 그 해답을 학습의 중요성, 배움의 즐거움을 역설한 논어 즉 공자님에게서 찾아보고 싶었다.

논어에 관한 책들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 고전적인 해석에서부터 보다 개방적으로 서양의 사상들과 연관성을 지적하며 자기만의 논리를 펴나가는 책까지 하지만 더딘 한 걸음이 되더라도 천천히 원문을 읽고 행간을 느끼고 싶었다. 스스로 짧은 한문 실력에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군가의 생각을 통해 바라보기 보다는 공자님의 생각을 내 방식대로 깨우쳐보고 싶었다.

그 무렵 내게 인연이 된 곳이 화성궐리사였다. 한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장구조조차 잘 모르던 나에게는 어둠 속의 등대 같은 곳이었다. 처음엔 수업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며 관련 도서들을 찾아 읽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 다른 해석들과 원문을 대조해 보면서 자기만의 해석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논어를 보는 일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논어는 읽는 사람이 가진 지식의 깊이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진다. 본래 논어 자체가 공자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 제자들이 만든 책이니 공자님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사상이 스며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1500년이 흐른 후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이끈 주자를 비롯한 100여명의 송원대 유학자의 해설을 엮은 논어집주에는 다양한 유학자들의 사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그 속에서 나는 세월과 무관하게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는 논어의 힘을 느꼈다. 그 시대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근간에서 사람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 사가현 타쿠시(佐賀縣 多久市) 에 있는 타쿠공묘(多久聖廟)

지난해 화성궐리사 측의 요청으로, 일본 사가현 타쿠시(佐賀縣 多久市)에 있는 공묘(孔廟:공자사당)에 고서(古書)를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다. 인구 2 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인 사가현(佐賀縣) 타쿠시(多久市)에 있는 이 공묘는 우연히도 화성궐리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다른 시설들은 없어지고 공묘만이 남아서 유학에 힘써왔던 그 지역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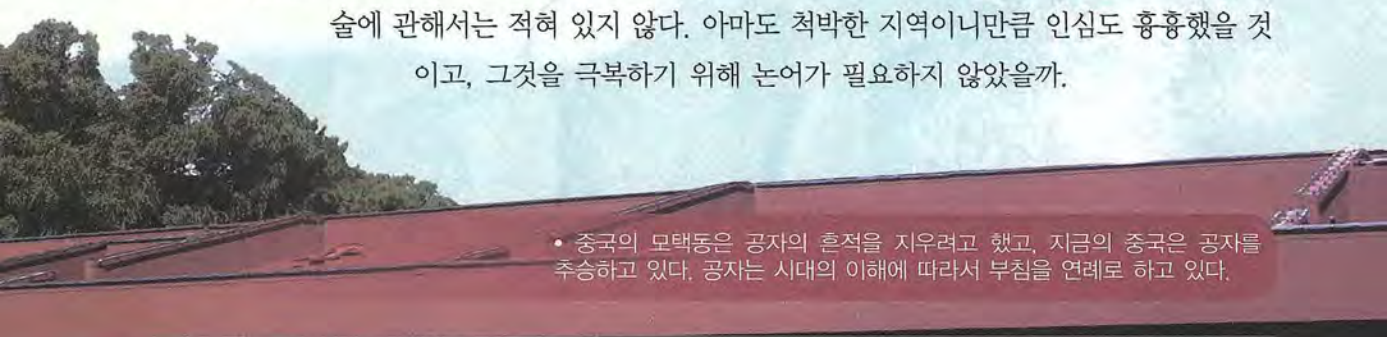


• 일본 사가현 타쿠시(佐賀縣 多久市) 에 있는 타쿠공묘(多久聖廟)

거기서 내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고서의 양이었다. 지역향토자료관에는 300 여 년 전 당시 그 곳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과서에서부터 중국 명 · 청 시대 때의 여러 고서들, 많지는 않았지만 조선에서 건너온 고서들까지 다양한 고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 보존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향토자료관에는 그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까지 인물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수집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본이긴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조차 이름이 생소한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이런 모습을 마주하다니 너무 놀라웠다.

그곳 관계자분의 설명으로는 타쿠시는 원래 땅이 척박하여 주변에 비해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서 300년전 이 곳 성주가 교육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해 학교와 공묘를 세웠고, 그 후 이곳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수업내용의 중심이 논어였다는 것이다.

실제 논어에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업을 향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 아마도 척박한 지역이니만큼 인심도 흉흉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논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 중국의 모택동은 공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고, 지금의 중국은 공자를 추승하고 있다. 공자는 시대의 이해에 따라서 부침을 연례로 하고 있다.



• 타쿠시(多久市)향토자료관 고서실 전경

기술이라는 실질적인 배움 이전에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지금도 그곳 초등학교에서는 초등과정 내내 논어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원하면 유치부 수업도 지원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논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강좌도 열린다고 한다.

"논어라는 책은 그 나이 때 느끼고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렵다는 선입견이 없는 어린시절에 시작하는 편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던 관계자의 말이 머리에 남는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또 다시 이 구절이 뇌리를 스친다. 우리는 배움을 시작할 때 선입견에 사로잡혀 즐거움에 다가가지 못한 건 아닌지. 스스로 체득할 때 오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귀찮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정된 길로 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르다는 이유로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려워 무리 속에 섞이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배우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책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 받으면서 앎이라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벗과 함께 배운 지식을 토론하며 서로의 부족한 면을 메워나갈 때 앎의 과정은 지식 창조의 과정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자신이 믿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눈과 머리가 아닌 손과 발을 통한 실천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2500년 전 학문을 대하는 방식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배움의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그 학문이 성장할 수 있다. 다만 배움에 있어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배움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학습의 과정이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나눔과 배려라는 사실을 당연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노은영

- 2012'혁신교육지원센터 교재개발위원 및 학부모스터디 멘토
- 현 한국심리상담지도협회 교육팀장



2013년 오산시 상반기 문화의 특징
오산, 문화 지평을 넓히다

| 글 · 사진, 시인 이 숙 영 |

지방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의 정보를 얻다보니 그 지역만의 특색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산의 경우도 서울 수도권의 문화전파 흐름을 느리게 받는다고 하지만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고 자체 생산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보니 시대적 유행에 따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 가운데 (재)오산문화재단 설립 이후 공연과 전시를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문화적 사유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바라는 이들의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극단 난다의 2012년 공연

2013년 오산시 상반기 문화의 특징은 문화 수요층의 확대이다. 공연문화가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공연장 분위기를 익히고 미래의 문화층을 넓히도록 문화를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은 혁신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

한 정서 함양과 맞 닿아있다. 계속해서 문화 나눔으로 오산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체적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펼치는 장을 학교 밖에서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극단 '녹두'와 다문화 이주여성인들로 구성된 하모니 극단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소년 엘시스테마 물향기오케스트라는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혁신교육지구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고 있다.

오산문화의 정점에 있는 문화공장오산에서의 미술기획전시는 멀리가지 않아도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들어있는 수준 높은 전시로 향상되고 있다. 전시회와 함께 전시 작가와의 대화로 이어져 작품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 시민들이 반기고 있다. 또한 오산세교단지의 문화적 흐름이 눈에 띈다. 이는 세교지역의 특색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오산시 문화의 한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화성지역과 경계에 있는 지역민들이 환영할만한 일로 화성시와 오산시의 협약식을 맺어 서로가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오산의 가장 중심인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가 7월 1일자로 구 국제화센터 건물로 이전하여 업무에 들어가 중앙동사무소에 들어서는 부대시설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에 대한 접촉의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1. 문화 나눔으로 오산을 만드는 사람

르노삼성자동차 오산대리점과 물향기 수목원에서 거리모금 진행하는 조기열씨

지역에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일 중에 르노삼성자동차 오산대리점(대표 전상홍)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30여명에게 지난 3월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공연을 관람시켜주었다.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청호, 꿈터 지역아동센터 등 클래식을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30여명이 관람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오산대리점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매달 30만원을 오산문화재단에 기탁해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후원을 반기며 이와 같은 후원자가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문화공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 삼성르노자동차와 지역아동센터

문화나눔으로 오산을 만드는 사람으로 오산시 물향기 수목원에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인

조기열 씨는 수목원을 다시 찾고 싶어지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조씨는 작년 8월부터 물향기 수목원에 근무하게 된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수목원입구 방문객 쉼터에서 거리모금공연을 한다. 주말에 12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토크 식으로 진행한다.

조씨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지 3년째. 조씨의 거리모금공연은 수목원에 오기 전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이 되었다. 지금은 근무지인 물향기 수목원으로 옮겨 100회 프로젝트 거리모금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 물향기수목원에서 조기열씨의 공연

2.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자체 역량 개발하는 교실 밖 기회

오산시학생회연합회활동과 '2013 오산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후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은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늘어나 자체적인 공연을 기획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찾아가고 있다. 오산문화예술회관대강당에서 지난 3월 8일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공연이 있었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경기, 오산지역의 청소년들로 자신들의 표현 욕구에 목말라하는 청소년 25명이 모여 만든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서울예술단의 지원을 받아 2달 만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는 문화체험이 부족한 곳에 한진중공업과 오산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제39회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셱스피어의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탄탄한 원작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무대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이 관람석을 꽉 찬 7백여 명을 앞에 놓고 무대를 사로잡는 무대장악력은 없었지만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공연을 이끌었다. 감정표현의 스펙트럼이 아직 넓지 않은 청소년들인데도 그들이 만들어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공연은 양질의 감동을 주었다.

뮤지컬 공연에 나온 청소년 25명 모두는 연기력 면에서 고르지 않았지만 그중에는 전문배우처럼 자신이 맡은 역을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무대 위의 역할을 드러나게 하는 학생도 있었다.

청소년들은 오산지역에서 만들어진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를 통해 문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오산지역에 문화적 토양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처럼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것은 외부적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



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팔을 걷어 부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지역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맛보는 기회였다.



▸▸ 청소년동아리 일일 카페를 마치고 공연활동

한편 오산시학생회연합회(회장 김보람 세마고)는 지난 6월 8일 오산시청과 오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오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강과 일일카페를 개최했다. '일일 카페' 운영과 함께 학교별 동아리회원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오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일카페를 위해 현직 바리스타에게 드립과정을 배우는 등 학생들의 열정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일일 카페'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니와 지역사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하기로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오산시학생연합회 'Maker'는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교열)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학생동아리 지원 사업이다. 오산시 관내 16개 중·고등학교 학생이 모여 2011년도부터 운영된 동아리로 매년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산시학생회연합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오산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고 타 지역 학생회연합회와의 교류와 연합 워크샵 등을 통해 오산시 청소년들의 문화수준을 높여간다.

지난 6월 8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정 있는 청소년들의 무대인 '2013 오산시 청소년 종

합예술제'를 개최했다. 오산시가 주관하고 유시스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 이번 종합예술제에는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4개 부문, 18개 종목에 걸쳐 총 65개 팀 391명의 초·중·고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예술제의 심사위원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오산시청소년종합예술제 종목별 최우수 팀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오산시 대표로 출전해 오산시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게 된다.



▸▸ 청소년종합예술제

3. 장애인과 다문화 극단도 문화의 한축이다

오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 극단 녹두와
사)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의 극단 하모니의 쾌거

장애인극단 '녹두'는 일본 구마모토현 YMCA 초청으로 해외무대에 선다. 이번 일본초청공연에 경기도 장애인 극단 '녹두'가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의 척박한 장애인 공연예술을 알리는 계기도 함께 마련함에 따라 일본과 제주도무대에 서는 배우를 선정하는 1차 오디션이 지난 4월 29일 2시 오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이하 오산ㅍ센터)에서 있었다. 1차 오디션에서 12명 지원자 중 8명을 뽑았다.

극단 '녹두'는 일본뿐만 아니라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인인권연극제에도 참가한다. 제주도 장애인인권연극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연극 팀과 모두 3팀이 선정되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무대에 오를 연극은 지난 2012년 7월 오산ㅍ센터와 장애인극단 '난다'의 주최로 공연된 '세상 밖으로'를 새롭게 각색한다.

일본공연은 하루 동안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한다. 공연, 예술 분야에 장애인들이 발 디딜 터전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펼쳐 넓혀 나가고 대외적으로 장애인 극단 '녹두'를 알리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오산ㅍ센터는 장애인극단 '녹두'의 공연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연예술과 장애인인권을 비교하는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장애인공연 예술관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실태를 비교해 오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적용시키도록 알리는 기능도 한다.

얼마전 사)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지부장 이화정)의 다문화 연극팀인 극단 하모니가 지난 6월 23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거행된 '제3회 경기다문화연극제'에 참가해 단체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별로는 극단 하모니에서 최우수연기상과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극단 하모니 우수상 수상

다문화 연극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대시켜 다문화 가족편견을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함으로서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되는 경기다문화 연극제이다.

극단 하모니의 우수상 작품의 내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을 그린 내용을 토대로 코믹하고 유익하게 만든 작품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용이 깊이 있고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오산연극협회 이화정 지부장은 "극단 하모니 단원들이 자주 공연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가능하면 다양한 각국의 이주 여성인들이 참여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흥과 끼를 펼치는 기회를 갖도록 해줄 생각이다"라며 이주 여성인들의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극단 하모니는 한 달에 한번 오산문화재단에서 공연모임을 갖고 있으며 각국 나라의 이주 여성인들이 스터디를 통해 문화를 좁히는 기회로 삼고자 10여명의 이주 여성인들이 춤과 노래, 연극을 통합한 예술단조직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계속해서 극단 하모니 단원을 모집 중에 있다.

4.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의 활약상

7월 18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는 교육혁신도시 오산에서 누구든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초 · 중 · 고 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와 위기학생들 가운데 희망 학생을 선발해 만든 학생 오케스트라단이다.

학생의 전공악기 수준에 따라 기초 · 중급 · 고급 연주과정을 개설하고 실력과 지도 능력을 갖춘 전문지도 강사를 초빙해 개인 · 합주 지도

를 무료로 실시하며, 2011년,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중간평가에서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가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유려하고 장중한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선율보다 소박한 연주의 리듬감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클래식 음악의 높은 문턱을 넘어가게 해준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활을 잡고 있는 학생들의 손과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관중들도 함께 흔들리지만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행위가 그대로 우리 오산 시민들의 삶 속으로 이어진다. 음악이 삶을 변화할 수 있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잡아주는 끈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오산 전체 학생에 비하면 극소수이지만 대표성을 띠고 연주를 하면서 오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한발 앞서게 해주었다.

음악으로 아이들의 삶이 변화하고 나아지며 행복해지는 것, 진정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음악적 성취로 찾아가도록 물향기 오케스트라가 길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오산원일초등학교(교장 갈원익)는 지난 5월 21일 5,6학년 학생 4백여 명과 학부모 70여명을 대상으로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단원 60명을 초청해 '해설과 함께 연주하는 이야기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오산원일초등학교 대강당에서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비발디의 '사계',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등 각 악기별 협주 합주곡과 교향곡, 우리 민요 모음곡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운암중, 유해열)의 해설로 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독주로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오는 7월 18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5. 문화공장오산 5~6월 기획전시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By Kids & For Kids'전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선정.
제1, 2기 토요문화학교 진행

오산문화재단의 작품전시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출산보육도시이면서 평균연령층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곳인 오산의 미술전시관인 문화공장오산의 5~6월 기획전시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By Kids & For Kids〉展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참여중인 신창용 작가가 가로 8M, 세로 2M 크기의 대작인 '섬'을 대중에게 첫 공개하기도 했다.



▸▸ 문화공장오산:신창용 작가와의 대화

북경 헤이챠오 콜아트 레지던시 초청으로 북

경에서 작업하게 된 이 작품은 작가가 최근 몇 년간 그려온 섬 시리즈로 스위스 출신의 아르놀트 뵈클린 Arnold Böcklin (1827~ 1901)의 '망자의 섬'을 패러디 한 것이다.

작가는 이소룡, 슈퍼맨 등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 또는 만화 속 영웅들을 자신의 이미지와 함께 그림 속에 표현함으로서 영웅이 상징하는 강한 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을 이들 영웅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나르시즘적 욕망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김수진, 원성원 작가를 비롯 9명의 그림책 작가들과 그림책 애니메이션 감독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Michal Klega, Florian Gwinner, 세계적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감독 Stéphane Aubier, Vincent Patar 등 총 20여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공장오산이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지원센터 주최로 운영되는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선정되었다.



▸▸ 꿈다락토요문화학교1기 작품전시회

1기 토요문화학교 성균관대학교 Michal Klega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오산지역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미디어아트 워크샵'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미셜 크레가(michal klega)가 직접 지도한 워크샵은 이미지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일상생활이다. 그는 "인간의 삶은 서사적 이야기인데 이번 워크샵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다. 주변을 걸으면서 영감을 떠올리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못 보던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훈련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 아트에서 이미지는 곧 언어인데 언어는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며 예술은 일상생활과 멀지 않다. 밖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다. 사진을 찍어놓고 나면 모두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미셜 크레가는 한국, 영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이자 미술이론가이며 철학을 공부했다. 지난 3월 30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미디어아트 워크샵' 개강일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일상생활은 이미지로 움직이는데 시와 그림 등 이미지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발견하여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주변의 일상에서 배운다"고 했다.





▸▸ 조영주 작가의 꿈다락 제2기 토요문화학교

1기에 이어 제2기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할 조영주 작가는 파리, 베를린,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술가로 파리에 있는 세르지 국립 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시각장애인과의 수업경험을 살려 원일초등학교 희망반 학생(담당교사 박태신) 6명도 함께 투입, 2기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행사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문화공장 오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展' 부대행사로 한솔수북과 함께 태극기 그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태극기 다는 날'(한솔수북 출판)그림책을 이용해 태극기의 유래와 뜻을 포함한 태극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림책 놀이로 알아보는 시간이다. 태극기 그리기 워크숍은 지난 5월 8일부터 탐방학교 수업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오산원일초등학교를 비롯 관내 초등학교 2학년 약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태극기 그림은 문화공장오산 4층에서 전시중이다.

문화공장 오산은 다양한 전시이외도 전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6.25의 추억을 작품으로 승화한 김수진, 조아라 두 작가를 초대해 작품에 공통으로 투영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수진 작가는 현재 전시작인 작품 '오레오 과자'의 작가로 6.25 시절 미제과자에 중독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과자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조아라 작가는 6.25 시절 아버지의 꿈을 '로켓보이'라는 그림책으로 표현한 원화전시를 문화공장 오산 3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 문화공장오산:김수진 작가의 오레오 과자

조아라 작가의 '로켓보이'는 한 소년이 종이 비행기를 갖고 놀다가 펼치지 못한 꿈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것을 에니메이션과 원화로 볼 수 있다. 조작가는 "작품 속에 6.25 전쟁의 시작은 결국 꿈의 시작으로 드러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은 비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잊지 말고 나아갔으면 하는 작가의 숨은 뜻이 깔려있다.

조작가는 "로켓보이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꿈의 투영이다. 전쟁은 소멸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조아라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졸업이후 독학으로 그림공부를 시작해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동화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4B연필과 종이로만 '로켓보이'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채색한 것보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림책 장면 중에서 그림을 반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은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의도성이 들어있는 작가의 장치이다.

'오레오 과자'작품의 김수진 작가는 대학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외국 유학 당시 진로를 그림으로 바꾸었다. 아버지가 미제과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는 제의적 의미를 놓고 독자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이후부터 미제과제를 작품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은 팬지꽃이 병원 앞에 피어있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오레오 과자'를 탄생하게 되었고 작품에서 과자 모양도 다 다르게 만든 것은 자연물이 완전한 것이 없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레오 과자'의 작품 속에 김수진 작가의 달콤한 추억과 쓸쓸한 추억이 공존되어 있는 작품이다.

김수진, 조아라 작가 모두 아버지의 기억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한낮에도 별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꿈을 이루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전달하고 있다.

'로켓보이'그림책 안에는 '한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쓰여 있다. '한 낮에도 보는 별'이라는 표현은 남이 안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로 6.25 전쟁 중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가는 작가의 뜻이 담겨있다.

조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로켓걸이고 로켓보이이다. 그 시대를 겪고 견디어 낸 주름살 잡힌 부모님들의 인생이 위대하므로 6.25라는 작품소재가 없었어도 '로켓보이' 그림책은 아마도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며 작가와의 대화를 마무리 했다. 한편 전 세계의 글자 없는 그림책을 모으기로 한 프로젝트에서

소리 없는 책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한국 그림책 '로켓보이'를 선정했다.

'로켓보이'는 제4회 CJ그림책상 수상작으로, CJ문화재단 지원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올해 초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로켓보이' 그림책 원화와 애니메이션은 7월 15일까지 문화공장오산에서 열리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에 가면 볼 수 있다.

김수진 작가와 조아라 작가의 작품 모두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보며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며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 문화공장오산 : 문화알리미 수업

문화공장 오산의 또 다른 교육사업으로 제1기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큐레이터, 문화알리미(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5월 23일 5시, 문화공장 오산 4층에서 개최되었다. 초등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한 문화 알리미기자단 20명과 영큐레이터 20여명에게 오산문화재단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큐레이터와 문화알리미 기자단의 발대식을 통해 문화예술전문가를 키워 다양한 문화예술경험과 활동으로 미래의 리더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알리미 기자단이 편집한 신문이 7월 13일 '문화보물섬'이름으로 발행하며 교육 및 미술관 관람과 전시기획에 참여하도록 한다. 12월 14일까지 15주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6. 세교지역만의 특색 있는 지역축제 벌이는 중

화합하며 마을 잔치를 열어왔던 지역색의 발현

세교지구 개발이후 사라져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재현이 세교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의 이동축이 운암에서 이동되고 있다.

세마동은 세마동민의 화합과 친목도모, 건강증진을 위한 '제 20회 세마동 한마음 축제'를 지난 6월 9일 죽미실내체육관과 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세마동체육회(회장 최성복)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행사에는 세마동 주민 포함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동놀이, 깃발잡기 서바이벌 등 주민화합경기와 족구,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체육경기가 진행됐다.

또한 세마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한국무용, 밸리댄스, 경기민요 등의 공연이 펼쳤으며, '마을별 노래자랑'과 같은 부대행사도 함께 실시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움을 더했다.

세마동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마을별 부녀회와 통장, 청년회 등이 함께 화합하는 마을 잔치를 열어왔으며, 마을 별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축제에 함께 하는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 등 훈훈한 마을 분위기를 이어내려 오고 있다.



▸▸ 세교한마음축제

또한 세교지역 금암향우회(회장 김상호)는 독산성문화제 기간 동안 고인돌공원에서 산신제와 체험부스코너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 들려주기', 고인돌공원의 풍경과 전경을 전시하는 향토사진전에 참여했다.

금암동산신제는 금암동마을에 대대로 내려온 제례의식으로 10년만인 지난 5월 11일, 8시 30분 고인돌공원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 옆에서 지냄으로서 전통의 계승을 통해 주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했다.

금암동산신제는 마을이 없어지기 전, 2003년까지 산신제를 지냈었다. 하지만 금암동 마을이 없어진 2004년부터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맥이 끊겼으나 이번 제4회독산성문화제 기간에 다시 재현하게 되었다.

산신제를 지내던 금암마을 뒷산의 당집마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정자가 세워졌다. 금암동에서 산신제는 마을에 금줄을 걸어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시월 초하루 자시에 지냈었다. 그러나 이번 산신제는 독산성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의 행사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오산 시민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당집이 아닌 고인돌공원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또한 독산성문화제 기간 동안 금암향우회 회원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체험 코너를 무료로 진행했다. 이것은 독산성과 고인돌공원, 금암마을에 관한 옛 이야기를 듣고 채록하는 체험으로 금암동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편 금암향우회는 소중한 사람들이 살았던 금암동의 역사를 정리한 '내고향 금암동'을 지난 3월 출간했다. '내고향 금암동'은 사진을 통해 금암동 사람들이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자 만들어진 책이다.

세교택지개발로 인해 금암동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재의 시점에서 마을의 역사를 정리해내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금암동이란 마을과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205페이지에 걸쳐 생생하게 담고 있다.

지난 6월 1일은 세교단지에서 맑고 아름다운 시인의 정서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시 읽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와 함께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낭송협회(회장 배명숙)와 오산대 이벤트연출과가 주관하고 오산시 중앙도서관, 오산문화재단, 신장동사무소 등 5개 단체의 후원하에 세교13단지, 은빛개울공원을 찾은 3백여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 세교지구, 배명숙 시낭송가의 시낭송

이번 문화콘서트에서는 경기시낭송협회의 시낭송을 주축으로 오산대 이벤트연출과의 댄스, 마술, 밴드공연 등의 공연과 중앙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독서 나누미에서 구연동화와 부채꾸미기 활동,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줄팽이 만들어 돌리기 전래놀이, 한글서예가 서병규 선생의 가훈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경기시낭송협회의 '시애(時愛), Dream Concert'와 중앙도서관의 '지붕 없는 도서관', 오산대의 '도심 속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등 지역 내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행사장내 차량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과 도서전시 등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은 관객과 함께하는 시낭송 시간에 애송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7.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 허물어 상생 발전 이룬다

중앙동사무소 (구)국제화센터로 7월 1일 이전

오산시와 화성시는 지난 6월 10일 2시, '오산-화성 접경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양 시 소관업무 담당국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렸다. 오산시장과 화성시장이 양 도시 간 행정구역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호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는 문화,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버스노선 불편해소 협력, 양산동지역에 대한 공동 산불방재 및 농지 헬리콥터방제, '서동탄역' 주차장 설치협력 이용 활성화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협약사항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인구변화가 심한 지역이면서 지리적 여건으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양 도시의 시민들이 접경지역에 살면서 피해보는 사례를 없애고 주민 편익을 주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동탄 지역의 폐수를 오산에서 해결하는 등 위해시설만 오산시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과 체육기반시설까지도 함께한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이루어 양 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진일보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화성 접근지역인 양산동주민들이 화성의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눈치 보는 일 없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산시와 화성시는 이웃 도시로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오산시와 화성시의 접경지역 주민편의 의한 업무협약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협소한 청사 공간으로 민원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중앙동 주민센터가 오는 7월 1일 인근 (구)국제화센터 부지로 이전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지난 1992년 건축돼 21년째 사용 중인 건물로 사무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협소해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주차장 시설의 협소로 민원인 내방시 청사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고 혼잡해 항상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됐으며, 동을 방문하는 차량 소유자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등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구)국제화센터(경기대로 307) 건물에 10억 4천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 3,175㎡)규모로 리모델링해 동주민센터 청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새로 이전하는 청사는 지상 1~2층에 ▲사무실과 민원실 ▲복지상담실 ▲회의실 ▲대강당 ▲다목적 프로그램실 ▲문화강좌실 등을 갖춰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3~4층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오산시식품안전체험관, 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가 입주해 종합행정타운으로 운영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근무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 이전을 추진했다"며 "이전 부지가 중앙동의 중심부로서 아파트 단지, 구시가지 모두 이용이 편리하고 전통시장과 구시가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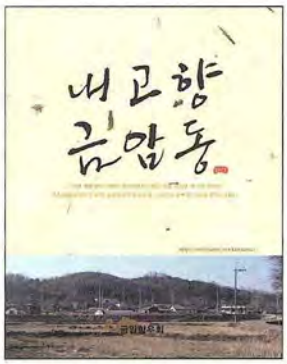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외에 많은 공연과 행사가 오산이라는 공간을 드높여 오산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로 기여했다.

오산의 장점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공간 안에서 문화적 소비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가깝기 때문에 오산의 실상이 잘 보이는 반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오산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인 문화소비와 함께 문화의 지평을 넓히다보면 성숙한 오산문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신간 안내

| 오산문화원 행정실장 추은실 |



『내고향금암동』 금암향우회 2013

오산에서 매우 뜻 깊은 책이 한권 발간됐다. 마을 사람들이 4년여의 시간을 들여 고향을 추억하고 기리는 마을 역사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

『내고향금암동』은 택지개발로 마을이 없어지고 동네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지자 향우회를 구심점으로 고향의 역사와 민속, 그리고 사람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4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된 지난한 작업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열정과 성의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마을의 역사가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 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택지개발로 수몰지역처럼 마을의 모습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변화된 모습과 과거의 소박했던 마을풍경,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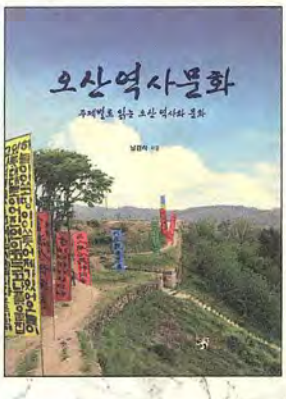
11기의 고인돌이 현재 존재하는 마을로서, 수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깊은 금암동의 과거와 현재를 재밌게 만날 수 있다.

저자 / 금암향우회, 발행처 / 우리동네사람들, 쪽수 / 210쪽.

오산역사문화

2012년 『주제별로 읽는 오산시 향토문화사』를 새롭게 개정하고 내용을 보강한 책이다. 저자는 오산 출신으로 오산향토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향토사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써오고 있다. 오산역사문화는 7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제가 비슷하고 관련 깊은 것들로 모아 편으로 구성하였다. 오산시에서 발행한 두 번의 『오산시사』를 주제별로 모아 압축하여 구성하고 타 사서를 보강한 것으로 오산시민의 향토사 갈증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칼라.

저자 / 남경식, 발행처 / 우리동네사람들, 쪽수 / 290쪽, 가격 / 35,000원.



2013년 오산문화원 상반기 소식

| 오산문화원 행정실장 추은실 |



》 해맞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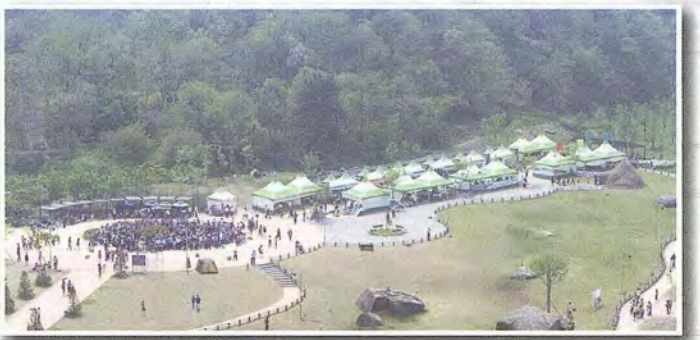


》 해맞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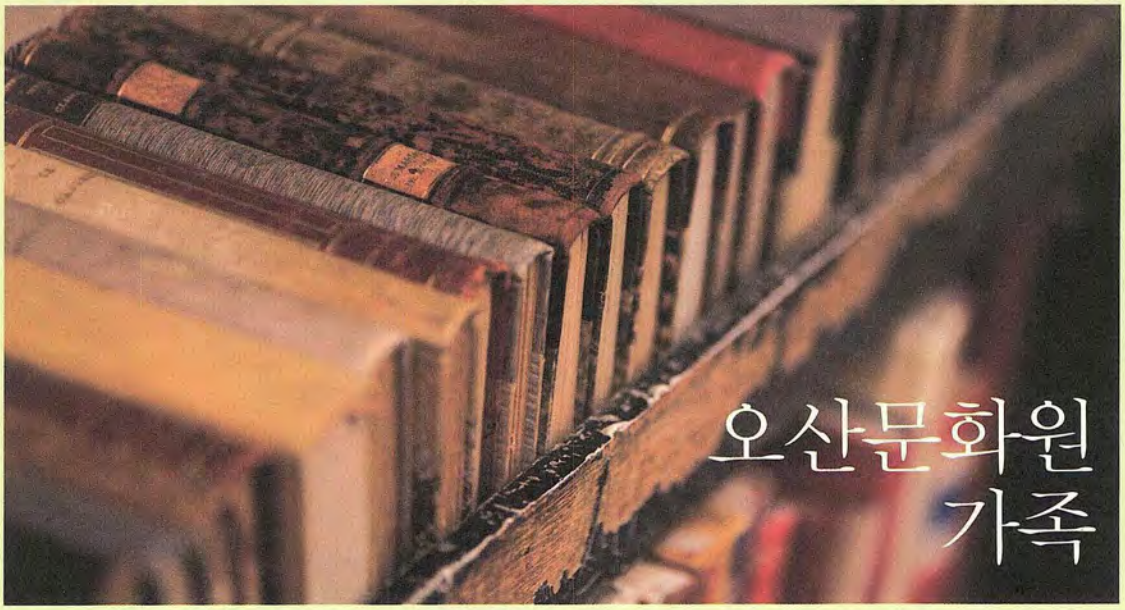


》 아빠와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1월 1일 신년 해맞이행사
1월~12월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월 24일 제8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축제한마당
3월 15일 제20차 정기총회
4월 27일 오산역사문화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둘레길 걷기
4월~12월 청소년 전통악기교실
5월 10일~12일
제4회 오산독산성문화제
5월 22일 문화의 발굴 · 육성 · 교육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서(MOU)체결
– 오산문화원장 임명재, 오산대학교 총장 서범석
5월 25일 문화탐방/춘천마임축제
5월~10월 오산실버합창단 운영
6월 오산문화 제55호 발간
6월 13일~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6월 18일~ 오산역사문화 바로알기



》 제4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오산문화원 가족



고 문 조석구 이기룡 오근택

원 장 임명재

부 원 장 유원복 이종석

감 사 윤병화 유장식

이 사 공영란 구명자 권영대 김규두 김명숙 김영진 김영희
김재명 김정수 남영도 류충권 류치양 모용상 박희주
배명숙 원종윤 이동렬 이봉준 장복실 주복덕 최형식
한금복 황선명

운영위원 공형식 김석렬 김정한 노해순 목진옥 민정근 박경진
박지순 성정은 손선아 원유배 이기택 이윤진 이재구
이정숙 이창규 이필영 장재홍 장 현 정지인 최서희
최창순 최호영 한귀동 한민규 홍학기

회 원 강민정 공란식 김선영 김영민 김해룡 김혁태 김태현
민순애 백미옥 변영일 서유순 송경은 송석일 신경애
신경희 오봉진 윤영미 이광세 이동우 이명녀 이보경
이상희 이선자 이원숙 이정혜 이종철 이태은 이현영
이화심 정연모 정정국 장명희 장영환 지은정 진연덕
최병문 최순희 최영미

사 무 국 국 장 유종대
행정실장 추은실

향토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남경식

회원모집

오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전통문화 계승 · 보존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오산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오산문화 등 각종 간행물 우송
- 문화원 주관행사에 우선 초대
-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 열람

연회비 12만원 (월 1만원) – CMS 자동이체
농협 196-01-011157 (예금주 : 오산문화원)

문의 및 접수

오산문화원 / 447-800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 1층(오산동 345)
전화 : 031) 375-7755 팩스 : 031) 375-7959

오산문화 2013년 제55호

| 발 행 처 | 오산문화원
우편번호 447-800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 1층(오산동 345)
전화 : 031)375-7755 / 팩스 : 031)375-7959
| 발 행 일 | 2013년 6월 30일
| 발 행 인 | 임명재
| 편 집 인 | 유종대
| 편 집 | 오산문화원편집위원회
| 편집관리 | 추은실
| 제 작 | 우리동네사람들 1577-5433

※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오산문화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osan culture



2013 VOL.55

오산문화원 4대 지표

01 내 고장 문화를 창조한다. 02 내 고장 문화를 발굴한다.
03 내 고장 문화를 보존한다. 04 내 고장 문화를 홍보한다.

문화 예술의 사랑방

오산문화원

OSAN CULTURE CENTER

www.oscc.or.kr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5 1층(오산동 345) **Tel.** 031-375-7755 **Fax.** 031-375-7959